

제13기 박물관대학 하반기과정

한잔의 역사, 차·커피·술

술술 알아가는 술 이야기



차례 / Contents

교육일정 •	3
중국 고대 금주령과 술의 역사_서은미 •	5
음주의 시대: 양반의 술 문화와 음주의 의미_류정월 •	15
주막의 근대적 지속과 분화: 식민지시기 주막의 변천사_주영하 • ..	41
Wine Communication: 소믈리에와 함께하는 와인 이야기_조학영 • ...	51
도연명과 이백의 음주시_장창호 •	67
조선시대 회화에 나타난 음주상_유옥경 •	79
맥주에서 위스키까지, 영화 얘기를 곁들인 술의 계보도_임범 •	91

제13기 박물관대학 하반기과정 교육일정

- ◆ 주 제 : 한 잔의 역사, 차·커피·술 - 술술 알아가는 술 이야기
- ◆ 기 간 : 2011년 9월 2일 ~ 10월 28일
- ◆ 장 소 : 인천광역시립박물관 석남홀

구 분	날 짜	강 의 주 제	강 사
제1강	9/2	중국 고대 금주령과 술의 역사	서은미 (부산대학교)
제2강	9/16	음주의 시대: 양반의 술 문화와 음주의 의미	류정월 (서강대학교)
제3강	9/23	주막의 근대적 지속과 분화: 식민지시기 주막의 변천사	주영하 (한국학중앙연구원)
제4강	9/30	Wine Communication: 소믈리에와 함께하는 와인 이야기	조학영 (송도파크호텔)
제5강	10/7	문화유적답사	유창호 (인하대학교박물관)
제6강	10/14	도연명과 이백의 음주시	장창호 (국민대학교)
제7강	10/21	조선시대 회화에 나타난 음주상 ^{飲酒像}	유옥경 (서울대학교)
제8강	10/28	맥주에서 위스키까지, 영화 얘기를 곁들인 술의 계보도	임 범 (문화평론가)

중국 고대
금주령(禁酒令)과 술의 역사

서 은 미
(부산대학교)

중국 고대 금주령(禁酒令)과 술의 역사

◆ 목 차 ◆

1. 중국 술의 기원과 기능
2. 중국 고대 금주령의 기원과 배경
3. 역대 금주령의 변천
4. 금주령이 해제된 시대
5. 권주놀이(酒令)

술은 인류문명의 시작과 함께 한 기호식품으로 오랜 역사를 지녔으며 중국 고대 사회에서는 현대인들이 생각하는 기호품 이상의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중국 고대 사회에서는 술의 다양한 기능에도 불구하고 술을 자유롭게 마시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다. 여기에는 종교, 정치, 경제 등 많은 요소들이 관련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는 음주문화의 발전과정을 금주령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1. 중국 술의 기원과 기능

술은 처음 우연히 발견되어 사람들에게 알려졌다. 그래서인지 중국 역사서 『사기(史記)』에도 술이 언제 어떻게 만들어졌는가에 대한 기사는 없다. 동서양 모두 술의 발견에 대한 정확한 기록보다는 전설과 함께 후대 기록들이 남아있을 뿐이다. 원숭이 술이라 불리는 원주(猿酒)의 일화가 그렇고 디오니소스와 얽힌 포도주의 전설, 중국의 경우 황제(黃帝)의 딸인 의적(儀狄)과 우(禹)임금의 설화도 그렇다. 모두 인간이 술을 마시기 시작한 시점이 매우 빠르다는 것을 공통적으로 보여준다.

술의 발견에 대한 기록이 없을 뿐 술에 관련된 기록 자체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가장 오래된 문자인 갑골문자(甲骨文)와 금문(金文: 청동기에 새긴 글)에 다수 남아 있는데, 고대문자의 표기는 비교적 간단하여 향아리 모양과

같은 형태의 ‘유(酉)’자로 ‘술 주(酒)’자를 썼다. 이로써 술은 인류문화사와 함께 시작되었으며 술의 다양한 전용 용기가 신석기시대 이미 다수 발견되는 것으로 보아 일찍 상당히 보편화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현대 중국에는 다양한 명주(名酒)가 존재하는 만큼 양조기술과 산업이 많이 발달하였다. 중국 상점 진열대에 놓인 수많은 종류의 술이 이를 증명할 뿐만 아니라 동네마다 직접 주조해서 판매하는 소규모의 상점이 많다는 것도 한국에서는 볼 수 없는 광경이다. 우리가 ‘배갈(白干兒)’이라고 부르는 중국인들이 즐기는 알코올 50~60도의 독주인 백주(白酒)는 증류주이다. 증류주는 청기스칸 시대에 서방으로부터 전해된 증류주 제조기술을 통해 발달한 것이다. 그 이전 시대에는 중국인들도 20도 미만의 술을 마셨다.

일반적으로 술이 물맛이 좋은 곳에서 발전하듯이 중국의 유명한 술들도 물이 좋은 곳에서 제조되었다. 사천성에서 생산되는 노주노교(瀘酒老窖), 수정방(水井坊), 량주(郎酒), 오량액(五糧液)이 있고 귀주성에서 생산되는 유명한 모태주(마오타이 茅台酒)가 있다. 산서성에는 분주(汾酒)와 죽엽청주(竹葉青酒)가 유명하다. 이밖에도 수많은 명주가 있다.

술의 이름을 붙이는 방식도 여러 가지가 있다. 생산지명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었다. 중국인들의 대중주인 소흥주(紹興酒), 최고의 명성을 누리는 모태주(마오타이 茅台酒), 분주(汾酒) 등이 모두 지명을 딴 이름들이다. 이외에도 양조방법과 저장 용기에 따라 붙이기도 하였고 인명 내지 아름다운 단어를 사용해 상호로 이용하기도 하였다.

중국 고대 사회에서 술은 현대보다 많은 기능을 가지고 있었다. 종교적인 기능으로 신과 인간을 연결해주는 매개체 역할을 하였으며 국가의 의례뿐만 아니라 관혼상제(冠婚喪祭)와 같은 일상사에서도 중요한 물품이었다. 또한 의학적인 기능도 높았다. 의료적 혜택이 미약했던 시대에 있어서 술에 포함된 알코올이 가진 효능은 놀라운 것이었다. 단지 고통을 잊게 해주는 것만으로도 만족스러운 것이었고, 곡주에 있는 영양성분과 알코올의 기능이 실제 질병을 치유하는 경우도 많았으므로 ‘백약의 으뜸(百藥之長)’으로 불렸다. 게다가 술이 가진 기호품으로서의 매력은 옛날에도 마찬가지였다. “근심을 덜어주는 것으로 술만 한 것이 없다”고 한 무제를 위로한 동방삭의 말은 어느 시대에도 통하는 것이었다. 이와 같이 술은 일찍 발명되어 보편적인 소비가 촉진되

었는데, 그럼에도 오랫동안 술은 서민들이 일상적으로 즐겨 마시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 이는 술의 정치적 기능과 함께 식량 수급 문제에 관련되어 있었기 때문에 국가는 술의 소비를 통제할 수밖에 없었다.

고대 정치에서 술은 통치 수단으로 유용한 기능을 가지고 있었다. 『예기(禮記)』에 “술로 예(禮)를 완성한다”고 하였고 『한서(漢書)』 「식화지(食貨志)」에 “술이란 하늘이 내려준 훌륭한 선물이라 할 수 있으며 제왕은 이것으로 천하를 두루 보살피고 제사를 지내 복을 빌기도 하며, 쇠약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질병을 요양하기도 한다. 예를 갖추어야 하는 모든 때에도 술이 없어서는 안된다(酒者 天之美祿 帝王所以頤養天下 享祀祈福 扶衰養疾 百禮之會 非酒不行)”고 한 것이 그것이다. ‘하늘이 내려준 훌륭한 선물’인 술을 통해 제왕은 천하를 누리고, 나아가 신하와 백성과 술을 통해 교감을 이룰 수 있었다. 술은 천지자연과 조상에 대한 제사를 통해 결속을 이루도록 하였으며 신과 인간을 연결해주는 매개체로 기능하였던 것이다. 또한 지배층의 일체감을 제공하고 서민에 대한 통치자의 감정을 전달하는 역할까지 수행하였다. 그리고 군을 통솔하는데 있어서 술의 역할은 매우 유용한 것이었다. 예를 들어 전투를 앞두고 하사받은 술 한 병을 장군이 병사들과 함께 마신다는 행위는 물을 탄 술이 희석되어 맛을 모를 지경이 되었지만 병사들의 충성심과 사기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정도로 충천하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던 것이다.

이와 같이 연회나 명절 등에 술을 하사하는 것은 군주의 은혜를 베푸는 것이며 군주가 신하에게 예를 지키는 것이었다. 따라서 이에 따른 신하의 답례도 엄격하였는데, 이런 예절들은 곧 관례가 되어 형식적인 것이 되기도 하였다. 그 결과 ‘동진(東晉) 원제(元帝)와 은선의 이야기’와 같이 재미있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되었다.

역대 모든 왕조에서 술을 만들고 연회를 준비하고 거행하는 전문기구가 있었다는 사실도 술의 쓰임새가 많았으며 중요하였음을 알 수 있다. 주(周)나라에는 주정(酒正)이라는 기구에서 술의 제조와 주연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고 후대에는 광록시(光祿寺)가 그 역할을 하였다.

술은 통치의 수단이었을 뿐만 아니라 정치투쟁의 무기이기도 하였다. 주연(酒宴)을 통한 정치적 협박과 살해 등의 일화들이 많아 남아있는데 항우와 유방의 ‘홍문(鴻門)의 연회’, 송 태조 조광윤이 금군(禁軍) 지휘관들을 불러

술자리를 벌이고 사직서를 쓰도록 종용해 병권을 장악한 ‘배주석병권(杯酒釋兵權)’ 등이 대표적인 일화이다. ‘소규조수(蕭規曹隨: 앞의 방식을 그대로 답습한다는 의미)’는 한(漢)나라의 첫 번째 재상이었던 소하(蕭何)의 정책을 유지하기 위해 조참(曹參)이 술로 일과를 보냈던 일을 지칭하는 말이다. 이밖에도 혼란기 지식인들은 본인의 목숨, 혹은 소신을 지키기 위해 음주로써 소극적인 정치적 투쟁을 하기도 하였다.

고대 사회에 술이 이처럼 많은 기능을 가지고 있었지만 부정적인 측면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주지육림(酒池肉林)은 그 부정적인 측면의 대표적인 일화이고 지나친 음주로 발생하는 정치적 문란과 경제적 낭비는 커다란 문제이기도 하였다.

2. 중국 고대 금주령의 기원과 배경

최초의 금주령이 시행되었던 시기는 최소한 양조와 음주가 보편화된 시점이라고 하겠다. 문헌상에 보이는 첫 금주령은 주(周)나라 때이지만 실제의 금주령은 훨씬 이전부터 있었다고 추정된다. 하(夏)나라 때 술을 마시고 직무를 태만하게 한 자를 사형에 처한 이야기가 전해진다. 상(商)나라 때는 무풍(巫風), 음풍(淫風), 란풍(亂風)을 삼풍(三風)이라고 하여 경계하였는데 관리들이 지나치게 음주가무(飲酒歌舞)하는 것을 무풍(巫風)이라고 하고 이에 대해 묵형(墨刑)을 처벌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에 대한 시행 범위는 관리에 제한된 것이었다.

이와 같이 일찍이 **정치적 문란**을 경계하였는데 이는 금주령 시행의 주요 목적이었다. 술은 군신(君臣)을 화합시키는 기능을 수행하기도 했지만 한편 지나친 음주를 통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오히려 군신간의 신망과 의리를 깨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였다. 따라서 지나친 음주를 통한 부정적인 결과의 양산을 막기 위해 일찍이 국가는 지배계층에 대해 음주를 경계시키려 하였던 것이다.

금주령 시행의 또 다른 주요 목적은 경제적인 것으로, 곧 농업경제의 주요 가치인 **식량의 낭비**를 방지하자는 것이었다. 술의 양조에는 대량의 곡식들이 소비되었으므로 식량의 조달이 원활하지 않거나 부족한 상황에서 술이 절제

없이 소비된다면 사회 경제적으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었다. 식량의 자급이 안정적이지 않은 경제상황에서 빈곤을 감지하기 어려운 사회 상층의 구성원들이 무절제하게 술을 소비한다는 것은 식량 가격을 상승시키고 식량 부족현상을 발생시켜 사회 하층이 기아에 시달리게 되거나 급기야는 반란의 빌미를 제공할 수도 있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주령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기란 수월하지 않았다. 무엇보다도 고대 사회에서 차지하는 술의 기능이 다양하였다는 사실은 금주령의 지속적인 시행에 커다란 걸림돌이었다. 게다가 지배계층의 술선수범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도 금주령의 지속적인 시행을 어렵게 하였다. 또한 중국에서는 한(漢)나라 때부터 술에 대한 징세가 이루어져 국가 재정에 주요 수입원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 따라서 정책의 집행자인 국가 입장에서조차 지속적인 금주령의 시행은 국가 재정 수입의 감소를 초래하는 것이었으므로, 금주령은 단기적이고 일시적인 시행으로 활용할 수밖에 없었다.

3. 역대 금주령의 변천

1) 최초의 금주령 주고(酒誥)

주(周)나라의 금주령은 문헌상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금주령이다. 앞 왕조인 상(商)나라의 마지막 왕인 주(紂)왕이 주지육림(酒池肉林)이라는 고사를 남기고 무너진 것을 거울삼아 주나라의 주공(周公)은 국초의 기강을 잡기 위해 왕명으로 엄격한 금주령을 포고하였다. 이는 왕조 전체에 걸쳐 내린 것으로, 왕공제후에 대해서는 예가 아니면 술을 마시지 못하게 규정하였다. 백성들에 대해서는 “**무리로 모여 마시는 자들은 절대 용서하지 않고, 모두 잡아들여 수도로 압송해 사형에 처하겠다**”고 하였다. 금주령을 집행하는 관리들에 대해서도 엄격한 규정을 두었는데 업무에 태만할 경우 사형에 처하도록 규정하였다.

금주령에서 주목되는 조항의 하나는 ‘무리로 모여서 술을 마시는 경우’, 즉 군음(群飲)에 대한 국가권력의 관심이 높았다는 사실이다. 주고에서도 백성들에 대한 규정은 바로 군음의 금지였다. 그리고 시대가 내려갈수록 군음에 대

한 규정은 더욱 구체적이 되었다. 이는 농사의 때를 놓치지 않게 하고 사회의 안정을 유지하려는데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2) 진(秦)의 금주령

진나라의 금주령 내용은 1975년 호북성 운몽현 수호지의 배수구 공사 중 발견된 능묘의 부장품 속에서 확인되었다. 이 능묘의 관 속에서 죽간(竹簡) 총 1,150여개가 발견되었는데 그 대부분이 법률관련서적이었다. 이 운몽진간(雲夢秦簡)은 진나라 연구에 매우 중요한 자료인데 금주령에 관련된 기록도 남아있었다. 진나라의 금주령 내용은 전사(田舍)에 사는 농민에게 술 판매를 금지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에 대한 업무는 농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던 지방의 관리들에게 맡기고, 위반한 경우 그 죄를 물었다. 민간에서 술을 마시고 판매하는 행위는 농업생산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국가가 바라는 바가 아니었다. 술의 소비는 자원의 낭비와 기강의 해이를 초래하였고 재력을 확보한 백성의 성장, 즉 호민(豪民)의 성장을 부추겼다. 호민의 성장은 소농민의 몰락을 병행하므로 국가의 통치에 있어서 권장할 사항이 아니었다. 또한 술이 가진 시여물로서의 상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통제가 필요했다.

3) 한(漢)의 금주령

한나라의 금주령은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되었다. 역대 금주령이 주목했던 군음(群飲), 즉 모여서 술 마시는 행위에 대한 명쾌한 정의를 내려, 3인 이상을 군음으로 규정하였다. 이때는 3인 이상의 사람들이 모여 이유 없이 술을 마시면 벌금으로 금 4냥을 납부해야 했다. 그러나 금주령에는 유고군음(有故群飲), 즉 타당한 이유로 모여서 마시는 것이 허용되었다. 타당한 이유란 혼례나 제사 등의 행사 때를 말한다. 이로써 금주령의 철저한 시행은 한계가 있었고 게다가 법령의 집행자인 황제조차도 이를 쉽게 어겼으며 지배계층인 상류사회에서는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 한나라 말기 조조가 재상으로 금주령을 시행하자 이에 반발한 공융(孔融)의 일화는 금주령의 실상을 잘 보여주는 사례였다. 이후의 금주령은 다만 임시적인 조치로 시행되었고 지방정책으로서 활용되었을 뿐이다.

4. 금주령이 해제된 시대

금주령이 해제된 때는 상업과 도시가 발전한 시대로 음주문화 역시 번성하였다. 농업기술에서 밭작물의 2년3모작, 논농사의 1년2모작이 가능해지는 당송시대에 이르면 소비가 미덕이 되는 시대로 변모하였다. 귀족사회에서 서민사회로 변모하는 시대이기도 하여 문화를 향유하는 범위도 확대되었다. 이에 술의 소비가 증대하고 양조업이 번영하였다.

* 증류주의 전래

문헌상에 보이는 증류주에 관한 기록은 5세기에 보이지만 이는 중국에서 양조된 것이라기 보다는 중앙아시아의 진상품으로 유입된 것이었다. 증류주의 제조법은 송(宋)나라 이후 전래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때는 극소수의 양조장에서 시험적으로 제조한 정도였고, 증류주의 보편적인 양조는 몽고의 원(元)나라 때 서역과의 교류를 통해 이루어졌다.

5. 권주놀이(酒令)

고대에는 “술로써 예를 완성한다”고 하였으므로 음주 예법이 엄격하였다. 연회는 바로 예의와 참석자간의 예법을 실습하는 연습장이 되었다. 따라서 연회에는 감독이 있어 시작부터 끝까지 ‘예를 완성한다’는 술로 인해 예를 벗어나지 않게 진행을 주관하였고, 예에 벗어난 행위를 한 사람들은 처벌을 받았다. 그러나 시대가 지나면서 점차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놀이로 변화하였다.

권주놀이는 대표적으로 유희령(遊戱令), 승부령(勝負令), 문자령(文字令)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유희령은 남녀노소 등 다양한 구성이 이루어진 모임에 적합한 놀이로 구성되었는데 꽃전달하기, 7에 탁자치기, 우스갯소리하기, 산가지뽑기 등이 있었다. 활쏘기, 투호, 바둑, 주사위던지기, 주먹 속 알아맞히기, 화권(손가락 수 맞히기) 등 승부내기를 즐기는 승부령은 남자들 중심의 모임에서, 문자령은 문인들의 모임 등에서 실시되었다.

음주의 시대
: 양반의 술 문화와 음주의 의미

류 정 월
(서강대학교)

음주의 시대 : 양반의 술 문화와 음주의 의미

◆ 목 차 ◆

1. ‘구별짓기’의 기호로서의 술
2. 주당의 형상화 : 대식(大食)과 호음(豪飲)의 긍정
3. 긍정의 이유: 내면의 크기와 강건함
4. 문화적 기호로서의 호음
5. 결론을 대신하여

1. ‘구별짓기’의 기호로서의 술

이 논문에서는 술 관련 이야기를 통해, 조선 초기 특히 15세기 양반 남성들의 술 문화에 대해 다루고자 한다. 대부분의 술 관련 이야기는 조선 초기에 집중적으로 나타나며 일화의 형태를 취한다. 이는 술 관련 이야기가 실제 인물의 이야기로 소통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일화에는 술꾼들의 형상이 잘 나타나는데, 대부분의 술꾼 등장 일화들은 조선 초기 잡록에 집중되어 있다.¹⁾ 이 논문은 조선 초기 음주 문화를 당시의 맥락 속에서 재구함으로써 당시 음주 문화의 특징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음식은 자연을 문화로 가공한 것이다. 이 과정에 수반되는 인간 노동의 가치에 따라 가공된 음식의 접근 가능성은 계층별로 다르다. 뻘에르 브루디외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음식이 사회적으로 위계화 된다고 하면서 음식 혹은 식사(문화)에 대한 취향을 분류하여 언급한 바 있다. 그는 음식의 양과 질, 꾸밈의 여부 등의 형태가 음식의 가격이나 영양가를 중시하는가 아니면 매너나 기능을 중시하는가 등의 태도와 관련된다고 보았다.²⁾ 음식에서 양이나 영

1) 강명관은 조선 초기를 “음주의 시대”라고 하였다. 강명관은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7년 전인 『선조실록』 18년 4월 29일의 기록을 그 근거로 삼는다. “요즈음 여향에서는 대소귀천을 가릴 것 없이 모두 연회에 절도가 없어 주육(酒肉)이 낭자하고 음악이 시끄러운 것이 태평하여 근심이 없을 때와 같으니 매우 한심합니다. 술병을 가지고 다니는 것을 일체 금단하소서.” 강명관, 『조선의 뒷골목 풍경』, 푸른역사, 2003, 125면.

2) 뻘에르 브루디외 저, 최종철 역, 『구별짓기: 문화와 취향의 사회학 上』, 새물결, 2006, 29-30면.

양가를 중시하는 경향을 음식에 대한 ‘기능주의’로, 질이나 꾸밈, 매너를 중시하는 경향을 ‘형식주의’로 본다면 이 두 가지 경향은,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음식의 형태와 취향의 양 극을 이루는 대립적 약호들이라고 할 수 있다. 부르디외의 시각에 따르자면 조선시대 술, 특히 양반들이 즐겨 마신 소주는 별다른 영양가가 없으면서도 매우 비쌌다는 점에서 양반들의 고급스런 취향을 드러내는 대표적인 형식주의적 기호(품)이라고 할 수 있다.³⁾

소주를 비롯한 술이 조선 초기 특정 계급인 양반들에게만 접근 가능한 기호품이 된 계기는, 역설적이게도, 금주령이라고 할 수 있다. 조선 왕조 내내 금주령이 시행되었다고 할 수 있지만 특히 조선 초기 국왕들인 태종, 세종, 성종 때에 금주령이 자주 시행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반들이 술을 즐길 수 있었던 것은 그 지속력이 약하고, 구속력이 심하지 않았다는 데에 일차적 원인이 있다. 금주령은 자연재해 등을 이유로 시행되었으나, 언제까지 지속할지는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았다. 금주령은 자연히 시간이 지나면서 희미해졌을 뿐, 해지한다는 명은 분명하지 않았던 것이다.⁴⁾ 영조 때에는 금주령을 어긴 사람에 대해 사형을 처하는 중벌이 실시되기도 했지만 조선시대에 금주령을 어긴 사람에 대한 처벌은 그보다는 약했다. 대부분의 양반들은 실제적인 처벌을 받지 않았으며 별다른 구속을 받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세종은 “태종께서 말씀 하시기를, ‘술을 금하는 것[금주]은 무익한 짓이다. 부호(富豪)들은 금망(禁網)에서 벗어나고, 빈약한 자들만이 죄에 걸려든다’고 하시더니, 내가 직접 당해 보니 과연 태종의 말씀과 같다.”⁵⁾고 회고하기도 했다. 금주령은 그 금지의 지속력이 한시적이고 양반들에게 특히 구속력이 약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⁶⁾

그러나 조선 초기 술을 공식적으로 금지한 데에는 곡식의 낭비와 같은 이유뿐만 아니라 보다 포괄적이고 근본적인 이유가 있었다. 세종은 술에 대한 폐

3) 고려시대부터 시작되어 조선조까지 소주는 사치스런 고급주로 분류되었는데 발효시켜 증류하기 위해서는 곡식이 많이 들기 때문이다. 곡식의 낭비를 이유로 소주를 금지하자는 간언이 있기도 했다. “사간(司諫) 조효동(趙孝叄)이 아뢰기를, “세종조(世宗朝)에는 사대부(士大夫) 집에서 소주(燒酒)를 드물게 썼는데 지금은 보통 연회(宴會)에서도 모두 쓰므로 낭비가 막심하니, 청컨대 모두 금지하도록 하소서.”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와 같은 일은 사헌부(司憲府)에서 마땅히 금지할 것이다.” 『성종실록』, 21년 4월 10일.

4) 당시에 금주령은 108건 시행된 데 반해서 해소령은 29건뿐이었다. 배진아, 「조선후기 음주 문화와 금주령」, 동아대, 석사논문, 2008, 12면.

5) 『세종실록』 세종 17년 3월 4일.

6) 허시명, 「실학과 술」, 『한국실학연구』 12집, 한국실학학회, 2006, 125면.

해와 훈계를 담은 내용의 글을 주자소에서 인쇄하여 반포하게 하는데, 여기에는 술의 부정성에 대해 다양한 측면에서 언급한다.

술의 해독은 크니, 어찌 특히 곡식을 씹히고 재물을 허비하는 일뿐이겠는가. 술은 안으로 마음과 의지(意志)를 손상시키고 겉으로는 위의를(威儀)을 잃게 한다. 혹은 술 때문에 부모의 봉양을 버리고, 혹은 남녀의 분별을 문란하게 하니, 해독이 크면 나라를 잃고 집을 패망(敗亡)하게 만들며, 해독이 적으면 성품(性)을 파괴시키고 생명을 상실(喪失)하게 한다. 그것이 강상(綱常)을 더럽혀 문란하게 만들고 풍속을 퇴폐하게 하는 것은 이루 다 열거(列擧)할 수 없다.⁷⁾

『세종실록』의 내용에 따르면, 술이 미치는 해독으로 곡식을 씹히고 재물을 허비하는 일 역시 사소한 것은 아니지만 마음, 의지, 위의를 손상은 매우 중차대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부모, 남녀 관계의 문제를 야기하며 크게는 집안과 나라의 패망을 야기하고 작게는 개인의 성품 파괴와 죽음을 야기한다. 마음과 의지, 위의를 손상은 개인의 내면과 외면에 대한 ‘수신(修身)’의 차원에서, 부모와 남녀 관계의 불화는 ‘제가(齊家)’의 차원에서, 나라의 패망은 ‘치국(治國)’의 차원에서 야기된 문제이다. 이렇게 술에 대한 부정성을 나-가정-국가로 위계화시키는 것은, 유가적 가치 위계와 긴밀한 관련을 가지고 진행된다. 마음, 의지, 위의를 손상, 즉 수신(修身)의 실패는 범주상으로는 가장 작은 문제인 것처럼 보이지만, 다른 모든 범주의 기초를 해한다는 점에서 중차대한 것이기도 하다.

이렇게, 조선 초기의 지배적 · 공식적 시각으로 볼 때 음주는 그 자체로 ‘악’이었다. 그러나 잡록에 나타나는 음주자들은 부정적으로 그려지지 않는다. 이 논문은 당시의 정치와 제도에 관한 컨텍스트를 참조하면서, 시대적 담론과 잡록의 이야기가 괴리된 지점을 파악하고, 그 괴리가 의미하는 바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7) 『세종실록』, 세종 15년 10월 28일.

2. 주당의 형상화: 대식(大食)과 호음(豪飲)의 긍정

일화는 일상적이지 않은 사건, 특별한 사건을 다룬다. 조선 초기 음주는 공식적으로 부정적인 행동이었지만 일화에는 그것과 다른 지점이 형상화된다. 주지하다시피, 음주에 대한 공식적 경계에도 불구하고 양반들의 음주는 매우 빈번하고도, 무절제한 방식으로 나타난다. ‘삼배주계(三杯酒戒)’ 일화들이 대표적인데,⁸⁾ 세종은 윤회(尹淮)와 남수문(南秀文)에게, 성종은 손순효(孫舜孝)에게, 정조는 이문원(李文源)에게 삼배주계를 내렸다는 일화가 있다. 다음 윤회의 이야기는 대표적인 삼배주계 일화이다.

문도공(文度公) 윤회(尹淮)와 집현전학사(集賢殿學士) 남수문(南秀文)은 모두 문장에 능하였는데, 술을 좋아하여 항상 정도에 지나쳤다. 세종께서 그 재주를 아껴서 술을 마실 적에 석 잔을 넘지 못하도록 명하였더니, 그 뒤로부터 두 공(公)은 반드시 큰 그릇으로 석 잔을 마시니, 이름은 비록 석 잔이라도 다른 사람보다 곱을 마신 것이다. 세종께서 듣고 웃기를,
“내가 술을 조심시킨 것이 도리어 술을 많이 먹도록 권한 것이 되고 말았구나.”하였다.⁹⁾

윤회는 술을 좋아하는 조선 초기 대표적 문인 가운데 한 명이다. 첫 번째 일화에서 보면 그는 술을 지나치게 좋아하는 것으로 나온다. 세종은 윤회에게 술 마실 때 세 잔 이상 마시지 못하게 하는 ‘삼배주계(三杯酒戒)’를 내린다. 윤회는 큰 술잔으로 석 잔을 마시면서 석 잔을 마시라는 명령을 지키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다른 사람보다 많은 술을 마신다. 삼배주계 일화에서 주당들은 술잔의 수를 전혀 지키지 못하거나, 임금이 내린 술잔의 크기를 늘려서 궁극적으로는 취할 만큼 마신다. 이 일화들은 이들의 음주가, 왕의 명령조차 무색할 정도로, 무절제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단적으로 알려준다. 뿐만 아니라 많은 일화들에서 양반들은 술과 좋은 음식을 즐겨 먹으며 그것에 집착하기도 한다.

문안공(文安公) 이사철(李思哲)은 몸집이 커서 음식을 남보다 유달리 많이 먹

8) 각 설화의 요약적 내용은 김현룡, 『한국문헌설화』 1권, 건국대학교 출판부, 1998, 141-144면 참고.

9) 『필원잡기』, 1권.

었는데, 항상 큰 그릇의 밥 한 그릇과 찢 닭 두 마리와 술 한 병을 먹었다. 등에 종기가 나서 거의 죽게 되었는데, 의원이 불고기와 독주(毒酒)를 금해야 한다고 말하니, 공이 말하기를

“먹지 아니하고 사는 것보다 차라리 먹고 죽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면서 여전히 술을 마시고 불고기를 먹어도 마침내 병이 나으니, 사람들이 말하기를,

“부귀를 누리는 사람은 음식 먹는 것도 보통사람과 다르다.”하였다.¹⁰⁾

조선 초기의 일화들에는 술과 음식에 대한 집착이 솔직하게 나타난다.¹¹⁾ 이 사철이 매일 먹은 술과 음식들의 종류와 양은 구체적으로 명시·열거된다. 그 양은 매우 많은데, 당시의 경제적인 여건을 고려할 때 아무나 먹을 수 없는 분량이다. 이사철은 의사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음식과 술에 대한 탐욕을 그치지 않는다. 그는 불고기와 독주를 먹고도 병이 낫는데, 이에 대해 사람들은 “부귀를 누리는 사람들은 먹는 것도 보통 사람과는 다르다”면서, 긍정적으로 논평한다. 이러한 논평이 가능한 것은 대식과 호음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이 논평은 대식과 호음의 문제를 주체의 신분과 관련지어 언급하고 있다. 대식과 호음이 단순한 취향이 아니라 주체의 부귀에 대한 하나의 기호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홍일동(洪逸童) 역시 조선 초기 대식과 호음을 즐긴 대표적 인사였다.

홍일동은 진관사(眞寬寺)에서 놀 적에, 떡 한 그릇, 국수 세 그릇, 밥 세 주발, 두부국 아홉 주발을 먹었는데, 산 밑에 이르니 대접하는 이가 있어 또 찢 닭 두 마리, 생선국 세 주발, 생선회 한 쟁반, 술 마흔 잔을 먹었으니, 보는 이가 놀라게 여겼다. 세조가 듣고 홍일동을 불러 묻기를, “참으로 이와 같이 먹었느냐?” 하니, 홍일동이 그렇다고 사과하자, 상감은 장사라 했다. 그러나 평상시 출입할 적에는 다만 미숫가루와 전술[醇酒]을 먹을 뿐이요, 밥을 먹지 않았다. 뒤에 홍주(洪州)에 가서 폭음을 하고 곧 죽었는데, 사람들이 그 배가 상하여 죽은 것이라 의심하였다. 뜻이 있어도 시행치 못하였고, 벼슬이 그 능력에 차지 못하였으니 애석하다.¹²⁾

10)李文安公思哲體質豐大, 飲食過人, 每食一大器飯二蒸鷄一壺酒, 患背腫臨絕, 醫云宜忌炙肉毒酒, 公曰與其不食而生, 母寧食之而死乎, 飲酒啗炙如常, 卒獲不善, 人皆曰享富貴者, 飲食亦異於常矣. 『필원잡기』 1권. 이후 『필원잡기』, 『용재총화』, 『기재잡기』 등 잡록의 출처는 모두 민속문화추진위 역, 『대동야승』이다.

11) 술과 안주에 대한 이러한 집착은 조선 초기 문헌 소화의 중요한 소재 가운데 하나가 되기도 한다. 이에 대해서는 류정월, 『오래된 웃음의 숲을 노닐다』, 샘터, 2006, 174-181면 참고.

홍일동이 먹은 음식과 술 역시 이사철의 경우처럼 구체적 숫자를 동원해서 나열된다. 나열은 많이 먹고 많이 마시는 인물을 소개하는 데 효과적인 형식이다. 홍일동의 일화에서도 대식과 호음이 서로 관련을 가지고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대단한 식사량과 주량이 나열되고 있고, 홍주에서 폭음으로 죽었다는 서술이 뒤따름에도 불구하고, 홍일동은 단순히 먹고 마시기를 즐기는 인물로 형상화되지 않는다. 세조가 이를 듣고 ‘장사’라고 했다는 인물 내적 논평과 함께, 기록 말미의 “뜻을 펴지 못하고 지위가 능력에 만족스럽지 못했으니 아깝도다(有志不施 位不滿能 惜載)”라는 편찬자의 논평은, 홍일동의 대식과 호음에 특별히 긍정적 의미를 부여해준다. 이러한 인물들의 논평이나 편찬자의 논평이 없는 경우에도 대식과 호음에 대한 긍정적 시선을 찾아볼 수 있다. 이는 배경부에서 인물을 소개할 때 좀 더 정교한 방식으로 나타난다.

지중추(知中樞) 홍일동(洪逸童)은 인격이 우뚝하게 뛰어나고 성품이 천진하며 걸치례를 꾸미지 아니하였다. 사부에 능하고 술을 많이 마셨는데 정신없이 취하면 풀잎으로 피리 소리를 내었는데, 소리가 비장(悲壯)하고 위엄이 있었다. 평상시에 혼자 오래된 거문고를 어루만졌는데, 줄은 있어도 악보는 없었다. 말하기를,

“나의 거문고는 천고(千古)에 전하지 않는 도연명(陶淵明)의 지취(志趣)를 얻었다. 옛날에 백아(伯牙)가 거문고를 타자 오직 종자기(鍾子期)만이 그 뜻을 알았는데, 나의 거문고는 도연명이 나오지 않으면 세상에서 알 사람이 없다.” 하였으니, 천지간의 기이한 남자라 할 것이다. 일찍이 상감 앞에서, 부처의 일을 논박하자 세조(世祖)가 거짓으로 성내기를,

“이놈을 죽여서 부처에게 사례하겠다.”

하고, 좌우에 있는 사람에게 명하여 칼을 가져오라 하여도 홍일동은 태연하게 변론했으며, 좌우가 거짓으로 칼로 정수리를 두 번이나 문질렀지만 돌아보지 아니하고 두려운 빛이 없었다. 세조가 장하게 여겨,

“네가 술을 먹겠느냐.”

하니, 일동이 대답하기를,

“번쾌(樊噲)는 한(漢) 나라 무사(武士)이며, 항왕(項王)은 다른 나라의 군주였

12) 逸童嘗遊眞寬寺，食餅一器麵三鉢豆腐麴九碗，及到山下，有餉之者，食蒸鷄二雙魚羹三碗魚膾一盤酒四十餘觚，觀者壯之，明日世祖聞之，召逸童問曰，信如是能喫乎，逸童拜謝，上曰壯士也，然常時出入，但食餌屑醇酒而已，不喫飯，後到洪州劇飲，尋卒，人疑其爛腹也，有志不施，位不滿能，惜哉。『필원잡기』, 1권.

는데도 향왕이 주는 한 동이 술과 돼지다리 하나를 사양치 않았는데, 하물며
성상께서 주시는 것이겠습니까.”

하였다. 은 향아리에 술을 가득히 담아 내려주었는데 그는 힘차게 마셨다. 상
감이 이르기를,

“죽음을 두려워하느냐?”

하니, 홍일동이 대답하기를,

“죽는 것이 마땅하면 죽고, 사는 것이 마땅하면 사는 것인데, 감히 죽고 사는
것으로써 그 마음을 바꾸겠습니까”

하니, 상감이 기뻐하여 초구((超裘) 한 벌을 주어서 위로하였다. 13)

일화에는, 대상 인물의 구체적인 에피소드들이 서술되기 전에 그에 대해 전
반적으로 소개하는 배경부가 있다. 이 일화의 배경부에서 홍일동은 술을 많
이 마신다고 소개된다. 술을 많이 마신다는 것이 인격, 성품, 문장 등에 대한
언급과 마찬가지로 인물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대표적인 특징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자질들의 설명 순서를 보면 술을 많이 마신다는 것이 개인의 정
체성을 구성하는 요소이기는 하지만, 인격 · 성품 등의 내면적 자질과, 사부
에 능하다는 능력적 자질에 비해서는 부차적인 것으로 생각되는 자질이었음
을 알 수 있다.

술을 많이 마신다는 자질은 인격이 훌륭하다거나 사부에 능하다는 내면적 ·
능력적 자질들과는 조금 다르다. 공식적 시각에서 보았을 때, 이러한 내면적
· 능력적 자질은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지만, 술을 많이 마신다는 것은 매
우 부정적으로 평가된다. 공식적 시각을 참조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술을 많
이 마신다는 것은 가치 평가가 개입되는 자질이라기보다는 단순 사실의 소개
인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 일화에서 술을 많이 마신다는 것은 다른 긍정
적 자질들과 함께 소개되면서 긍정적인 자질 가운데 하나로 자리매김 된다.
호음에 대한 긍정은 당시의 공식적 담론과는 괴리되는 지점이다. 그렇다면
호음이 개인적 담론에서 어떻게 긍정될 수 있었는가 알아보아야 한다.

13) 洪中樞逸童器宇卓犖，性任天真，不脩邊幅，善詞賦劇飲，無何醉則用草葉作吹笛聲，悲壯震厲，平居獨撫
古琴，有絃無譜，嘗曰，吾之琴得淵明千古不傳之趣，昔伯牙鼓琴，唯子期知之，吾之琴淵明不生，世無知
者，天地間奇男子也，嘗於 上前論佛事，世祖佯怒曰，當殺此虜以謝佛氏，命左右取劍來，逸童論辨自若，
左右佯以劍撫頂者再，亦不顧視，無懼色。世祖壯之曰，汝能飲乎，逸童曰，樊噲漢士也，項王他主也，卮酒
*肩不敢辭，況 聖賜乎，賜酒一銀盆，健倒，上曰頗畏死乎，逸童曰，當死則死，當生則生，敢以生死而易
其心乎，上喜賜超裘一領，慰解之。

3. 긍정의 이유: 내면의 크기와 강건함

홍일동의 일화에는 세조 앞에서 홍일동의 음주 행위가 자세하게 서술된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홍일동의 배경부에는 그의 인격-성품의 내면적 자질과 문장-술-음악의 능력적 자질이 서로 별다른 연관 없이 단순 나열되어 있다. 그러나 이후에 홍일동이 세조 앞에서 보여준 행동을 통해 그 두 가지는 서로 연관된다. 그는 세조 앞에서 불교에 대해 비판하고 죽음 앞에서도 태연하며 술을 내렸을 때는 힘차게 마신다. 이는 그의 내면적 자질이 ‘우뚝[卓犖]’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일화이자, 그의 대단한 호음을 보여주는 일화이기도 하다. 홍일동은 ‘내면적 자질이 뛰어나면서도 술을 많이 마신다.’라는 단순 연결 관계나 혹은 ‘내면적 자질이 뛰어나기 때문에 술을 많이 마신다.’라는 인과 관계를 설정할 가능성을 보여준다. 음주는 단순한 음주가 아니라 음주자의 내면적 자질을 드러내는 하나의 계기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음주자가 음주를 통해 구성하게 되는 내면적 자질은 구체적으로 어떤 성격일까? 홍일동의 내면적 자질의 뛰어난 점은 임금 앞에서도 할 말을 모두 하는 ‘우뚝함’으로 나타난다. 그가 그런 ‘우뚝함’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죽고 사는 것에 초연할 수 있기에 가능하다. 그는 향아리 가득한 술을 단숨에 마시기도 한다. 그의 내면과 호음은 유사성을 가지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의 크고 강한 내면은, 양적으로 단숨에 많은 양을 마시고도 끄떡없는 음주의 모습과 유사하다. 이렇게 호음은 내면적 자질이 크고, 강하다는 것을 암시하는 하나의 중요한 사건이다. 삼배주계의 대상이 되었던 윤희의 다음 이야기는 호음과 내면의 관계를 좀 더 분명하게 드러낸다.

문도공(文度公) 윤희(尹淮)는 문장이 한때의 으뜸이었다. 그리하여 세종 때에 경연에서 독대(獨對)한 바도 있다. 그러나 성질이 술을 좋아하여 너무 양을 과하게 마셨다. 하루는 집에서 술에 만취되어 누워있었는데, 세종이 중사(中使)를 보내어 급히 불렀다. 좌우의 사람이 붙들어 일으켜서 말에 태우니 아직도 취기가 깨지 않아 사람들이 모두 걱정스럽게 생각했는데, 오히려 임금 앞에 이르러서는 조용히 진달하여 조금도 취한 빛이 없었다. 임금이 선포할 제서(制書)의 기초(起草)를 명하니, 나는 듯이 붓을 휘둘렀으되, 모두 임금의 뜻에 합당하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참 천재로다.”

하였고, 당시 사람들은 말하기를,

“문창성(文昌星)과 주성(酒星)의 정기가 모여 한 현인을 낳았다.”했다.¹⁴⁾

이 일화는 윤희의 무절제해 보이는 음주가 어떻게 용인되는가를 보여준다. 윤희는 술에 만취되어 누워 있었고 말에 탈 때도 좌우가 부축해주어야 했다. 그러나 임금 앞에서는 취한 내색이 없으며, 만취상태에서 쓴 제서의 문장은 뛰어났다. 여기에서 취한 육체와 취하지 않은 정신이 서로 대립되어 나타난다. 그러나 이 대립은 어느 한 쪽으로 통합되는 것처럼 보인다. 윤희는 취했지만 임금 앞에서는 취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고 평소처럼 훌륭한 글을 쓸 수 있었다. 취하지 않은 그의 정신이 취한 육체를 제어한다. 취하지 않은 정신은 취한 몸을 동반할 때 빛을 발휘한다. 술은 음주자의 정신적 강건함을 알 수 있는 하나의 지표가 된다. 따라서 그는 ‘문창성’과 ‘주성’의 정기가 모인 인물이라고 언급되며 평범하지 않은 ‘현인’이라고 평가된다. 문장력과 음주벽이 결합된, 드물지만 뛰어난 경우로 회자되는 것이다.¹⁵⁾

대식과 호음의 무절제함에 대한 합리화가 마련되는 것은 바로 취하지 않은 정신이 취한 육체를 제어하는 지점이다. 유교적 의식 속에서는 몸과 마음이 갈등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조화를 이루는 것이라고, 즉 별개의 것이 아니라 하나라고 보는 ‘심신일원론(心身一元論)’의 관점이 지배적이다. 물론 유교 또한 인간존재에게 몸(신체)이라는 것이 있고, 마음(심성)이라는 것이 존재한다고 본다. 그러나 유교는 세계와 우주를 ‘조화’와 ‘유기성’으로 파악한다. 그래서 몸과 정신의 관계에서도 둘을 분리할 수는 없다. 정신은 속에 깊이 감추어져 있고 물질은 겉으로 드러나지만, 둘은 식물의 뿌리와 가지가 생명으로 하나를 이루듯, 마음이 뿌리가 되고 몸이 가지가 되어 유기적으로 조화하

14) 尹文度公淮文章冠一時，世宗朝獨對經幄，然性喜酒過量，一日在家，泥酒大臥，世宗遣中使急召，左右扶紀上馬，宿醉未醒，人皆懼之，及至上前，從容敷對，畧無醉色，上命草宣制，揮翰如飛，皆合睿之，上曰眞天才也，時人語曰，文星酒星聚精生此一賢也。『필원잡기』, 2권.

15) 윤희의 일화와 유사한 것으로 손순효의 이야기가 있다. 손순효 역시 매우 재주가 뛰어나서 성종의 총애를 받는다. 그러나 그 역시 술이 너무 과도해서 성종은 석 잔을 초과해서는 못 마시게 명하였다. 하루는 중국에 보낼 하표문(賀表文)이 마음에 안 들어 대제학인 손순효를 불러 오게 했다. 그는 여러 곳을 다니면서 찾아서 저녁때야 어전에 나타났는데, 술이 덜 깬 상태였다. 왕이 과음을 문책하니, 시집간 딸 집에서 큰 늦그릇으로 석 잔을 마셨다고 대답했다. 왕이 취중임을 이유로 글쓰기를 만류했으나 그는 즉석에서 글을 지어 바쳤는데, 한 글자 한 획도 잘못된 곳이 없었다. 이어 왕이 그에게 술을 하사 하고 운자를 불러 시를 짓게 하며 춤을 추도록 했다. 손순효가 술에 취해 잠드니, 왕이 자신의 남색 비단 철릭을 벗어 덮어 주었다. 이 일화는 『오산설림초고』에 나오는 것인데 여기에서는 『한국문헌설화』 1권 141면의 요약을 참조한다.

고 융화하는 일체를 이룬다고 생각하는 것이다.¹⁶⁾

심신일원론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윤회의 일화는 독특한 의미를 양산하기도 한다. 임금 앞에 서기 전까지 윤회는 취한 몸을 가진 취한 사람으로 생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임금 앞에서 임무를 훌륭하게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은 취하지 않은 정신이 취한 몸을 통어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윤회의 일화는, 몸은 취할 수 있어도 정신은 취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윤회의 일화는, 취하지 않은 정신이 취한 몸을 통제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것은 무절제한 음주를 합리화하는 기제가 된다. 무절제한 음주를 합리화하게 될 때에 이렇게 심신일원론에는 균열이 생긴다. 그러나 그러한 균열은 취하지 않은 정신의 우월함을 강조하면서 봉합된다. 조선 초기에 무절제한 음주에 대한 일화가 자주 보고될 수 있었던 데에는 취하지 않은 정신이 취한 몸을 제어할 수 있다는 강한 믿음이 전제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음주를 통해 드러나는 내면적 자질 가운데 중요한 것은 바로 내면의 크기와 정신의 강건함이다.

이렇게 음주의 행위와 내면적 자질을 크기와 강함이라는 물리적 유사성 하에 관련짓는 것은 문화적으로 독특한 방식이다. 조선 초기 음주의 문화적 의미가 가지는 독특함은 두 가지 방식으로 설명이 가능한데, 하나는 같은 시·공간에서 다른 계층의 음주 행위를 살펴보는 것(공시론적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다른 시·공간에서 이루어진 음주 행위를 살펴보는 것(통시론적 방법)이다.

4. 문화적 기호로서의 호음

1) 양반의 호음과 천민의 호음

조선 초기 양반 이외 계급들의 음주에 대한 기록은 많이 찾아보기 힘들다. 그러나 음주가 내면의 긍정적 자질과 관련되어 있다는 낙천적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음주의 주체가 양반인 경우에만 해당하는 듯하다.

한봉련(韓奉連)은 본래 우인(虞人:사냥꾼)인데 활을 잘 쏘아 세조(世祖)의 지우

16) 이영아, 『육체의 탄생』, 민음사, 2008, 25-26면.

(知遇)를 받았다. 그 활 쏘는 힘은 매우 약했으나 맹호(猛虎)를 보면 가까이 걸어가 힘껏 당겨 반드시 한 화살로 맞춰 죽었는데, 평생 동안에 죽인 수를 이루 헤아릴 수 없었다. 일찍이 궁궐 안에서 나희(讎戲)를 하는데 광대들이 호랑이 가죽을 쓰고 앞으로 달리니, 한봉련에게 호랑이를 쏘는 시늉을 하라고 명하였다. 한봉련이 작은 활과 쏙대로 만든 화살을 가지고 뛰어 나오다가 발을 잘못 디더 계단에서 떨어지면서 팔이 부러지자 사람들이 모두 진짜 호랑이에게는 용감한데 가짜 호랑이에게 겁을 낸다 하였다. 영순군(永順君) 덕의 잔치에 조정의 문사(文士)들이 모두 참석하였는데, 세조의 명으로 한봉련이 선운(宣醞: 궁중에서 쓰는 술)을 싸 가져가니 좌중이 모두,
 “너는 천사(賤士)지만 어명으로 왔으니 천사(天使)이다.”
 하면서, 상좌에 앉혔다. 곱게 단장한 미인이 온 사방에서 하늘을 찌르듯 노래를 불렀으나, 한봉련은 부끄러워 말 한 마디 못한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사람들이 다투어 술을 권하니 나중에는 크게 취해 호상(胡床)에 걸터앉아 팔을 휘두르며, 눈을 부릅뜨고 호랑이 쏘는 시늉을 하면서 큰 소리로 고함을 치니, 좌우에 있던 사람들이 우스워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¹⁷⁾

한봉련은 사냥꾼으로 천한 신분이다. 다른 등장인물들도 그를 천인으로 여긴다. 그에 대한 에피소드는 두 가지가 함께 제시된다. 첫번째는 그가 나희 때 실수를 한 것이고(에피소드1), 두 번째는 양반들의 잔치에 끼어 술을 마신 것이다(에피소드2). 먼저 술에 관한 두 번째 에피소드부터 살펴보자. 한봉련은 세조의 술 심부름으로 양반들의 술자리에 참석한다. 그는 부끄러워 말 한마디 못한 채 고개만 숙이고 있다가 만취하자 호랑이를 쏘는 시늉을 하면서 큰 소리로 고함을 친다. 그는 더 이상 미인들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며 심지어는 그들에게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고자 하는 것처럼 보인다. ‘부끄러움’→‘자랑스러움’으로의 변화는 술로 인해 나타난 것이다. 그의 행동을 보고 양반들은 모두 웃는다. 그 웃음의 성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봉련의 첫 번째 에피소드를 보아야 한다. 그에 대해 사람들은 실제 호랑이에게는 용감하지만 종이호랑이는 겁낸다고 하였다. 한봉련이 궁중 나희 때, 가면 쓴 호랑이를 쏘는 시늉을 하다가 넘어져 다친 실수를 비꼰 말이다. 에피소드1과 에

17) 韓奉連本虞人也，以善射遇知於世祖，其弓力甚弱，然見猛虎則必步入，引滿而中之，一箭必殪。平生所獲，不可勝數，嘗於內庭讎會，優人蒙虎皮前走，命奉連爲射虎之狀，奉連持小弧蓬矢，騰躍而進，誤側足墜階而折臂，人皆曰，能勇於眞虎，而劫於假弧也。永順君第宴，朝廷文士盡赴之，世祖命奉連齎宣醞而往，座中皆曰，汝雖賤士，御命而至，即天使也，延之上座，紅粧翠黛滿四座，歌吹沸天，奉連羞澁，一無所語，但俯首而已，人爭勸酒，乃大醉踞胡床，攘臂瞋目，爲射虎狀，呼呶不已，左右無不絕倒。『용재총화』, 6권

피소드2가 공통적으로 가지는 내용은 한봉련이 호랑이를 쏘는 시늉을 한다는 것이다. 에피소드2에서 사람들이 웃는 것은 두 가지 이유로 생각해 볼 수 있다. 하나는 한봉련의 이 행동이 이전의 실수를 상기시켜서 이고, 다른 하나는 스스로의 실수를 상기시키는 일을 그가 만취한 상태에서 하고 있기 때문이다. 행동 자체가 우스운 것일 뿐만 아니라, 행동을 야기하게 된 상황 역시 우스운 것이다. 한봉련에 대한 웃음은 어리석음을 보고 웃는 웃음이다. 한봉련이 마신 술은 그의 지난 어리석음을 스스로 반복해서 보여주는 것이다. 이것은 그가 술을 마시지 않은 ‘부끄러움’의 상태에서는 결코 하지 않았을 것이다. 한봉련은 술로 인해 태도가 변화였고, 이것은 비웃음의 대상이 될 만한 것이다.

한봉련의 음주에 대해서는 그 양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는다. 그에 대해서는 마신 양보다 취했다는 결과론적 사실과 취한 후의 행동이 더 중요한 것처럼 서술된다. 취한 후의 행동을 보면 그가 술을 통해 마음과 의지, 위의를 손상을 야기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확연한 손상이 목격될 때 음주 행위는 비웃음의 대상이 된다.¹⁸⁾ 윤희의 경우, 문장이 뛰어나지만 문장이 뛰어나기 때문에 기록될 가치를 획득한 것이 아니다. 그가 술을 많이 ‘마셨음에도 불구하고’ 뛰어난 문장을 구사할 수 있었기 때문에 기록된 것이다. 양반들의 경우 음주는 내면의 크기와 강건함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의 사건이다. 이는 음주에도 ‘불구하고’라는 수사로 표현할 수 있으며, 그것은 주위의 경탄을 야기한다. 반면 한봉련은 음주를 통해 내면의 손상과 위의를 상실을 보여준다. 그리고 바로 그 사실로 인해 비웃음을 당한다. 한봉련의 경우는 음주 ‘때문에’라고 표현될 수 있으며, 그것은 주위의 비웃음을 야기한다.

2) 조선 초기의 음주와 조선 중기의 음주

앞서 언급한 것처럼, 조선 초기라는 동일한 시·공간에서 음주를 내면의 크기와 강함을 드러내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양반이라는 특정 계층에 한정된 것이었다. 그렇다면 조선 초기와는 다른 시·공간에서의 음주는 어떤 문화적 의미를 가지는 것이었는가 살펴보자. 조선 초기 술 관련 일화는 술을 ‘얼마나’ 마시는가에 초점을 맞추어 이루어졌다. 그리고 이는 단순한 양으로

18) 양반이 술을 통해 확실한 손상을 야기한 경우도 물론 있다. 그러나 그들에 대해서는 객관적 사건의 기록에 그치거나 안타까움을 드러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서 중요한 것이라기보다는 음주자의 내면을 드러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었다. 결론적으로 언급하자면, 조선 초기는 ‘어떻게’ 마시는가보다는 ‘얼마나’ 마시는가를 문제 삼은 거의 유일한 시대가 아닌가 한다. 얼마나 마시는가의 문제는 그 이후 다른 방식으로 평가되며 음주와 인격의 관계 역시 달라진다.

문경공(文景公)이 천품이 호탕하고 뛰어나 탁월한 큰 절개가 있었으며, 성격이 술을 좋아하여 때로는 늙은 계집종을 불러 서로 큰 잔을 기울여 취하여 쓰러져야 그만 두기도 하였다. 일찍이 국화 8분(盆)을 길렀는데, 한 가을에 활짝 피므로 대청 가운데 들여 놓으니, 높이가 대들보에 닿았다. 공이 그 향기를 사랑하여 끊임없이 완상하였다. 하루는 집안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오늘은 좋은 손님이 여덟 분 올 것이니 술과 안주를 마련해 놓고 기다리라.” 하였는데, 해가 저물어도 적적하게 손님이 오지 않았다. 집안사람들이 여쭙기를 “벌써 술상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하자, 공이

“조금만 기다려라.”

하였다. 둥근 달이 떠 빛이 대청 안으로 들어와 꽃빛은 난만하고 달빛은 명량 하자 공이 그제야 술을 내오라 하며 8개의 국화분을 가리키면서

“이것이 나의 좋은 손님들이다.” 하고는, 각각 그 앞에 좋은 안주를 차려 놓고 말하기를,

“내가 은도배(銀桃盃)에 술을 따르리라.”

하고 각각 두 잔씩을 따라 주고 과하였는데, 공도 또한 취하였다.

판서 고형산이 배가 크고 불룩해서 음식을 두 사람 분을 먹었다. 사람들이 혹시 음식을 대접하면 좋고 나쁘고, 많고 적음을 가리지 않아 입이 놀 때가 없었으며, 주량은 더욱 한이 없었다. 호조에 있을 때인데, 하루는 아전에게 이르기를,

“내일은 나의 아는 사람이 지방관으로 부임하는데, 내가 모화관(慕華館)에 나가서 전송할 터이니, 장막을 치며 술상을 차려 놓고 기다리라.”하였다.

이튿날 조반이 끝난 뒤에 가마를 재촉하여 나가보니 과연 관문(館門) 밖에 장막을 치고 그 옆에 술 3동이와 안주 상자를 상 위에 벌려 놓았다. 공이 앉자 한 아전이 바빠 와서 고하기를,

“소인이 대궐 문에서 보니, 단지 대포만호(大浦萬戶)가 하직하는데 동대문을 거쳐서 나갔을 뿐입니다.”

하였다. 공이 말하기를,

“그가 내 옛 친구로서 일찍 약속이 있었는데 어찌 속였을까? 그러나 할 수 없는 일이다.”

하고는,

“밥 먹은 지 오래지 않으나, 목이 자못 마르니, 시험 삼아 한 대접 마시겠다.”

하였다. 그리고는 안주 상자를 열어 두어 젓가락 들고 보니, 곧 그 절반이 없어졌고 연거푸 10여잔을 마시니 한 동이가 다 비었다. 공이 말하기를,

“녹사(錄事)도 일찍 출군하여 필연코 배가 고플 것이니, 한 잔을 권해야겠다.”

하고, 또,

“서리(書吏)와 하인들도 여러 시간 분주히 뛰어다녔으니, 또한 마셔야 할 것이다.”

하고는, 공이 반드시 대작을 하였다. 아직 한 동이가 남아 있는 것을 보고는 공이 또한,

“어찌 주인에게 안 전할 수 있느냐.”

하여, 관문의 첫째 기둥에서부터 잔을 들어 권하여 마치 대작하는 사람이 있는 것같이 하여 세 동이를 다 비우고 나서야 얼큰히 취하여 돌아갔다.

나는 생각건대 문경공의 행동은 호방하고 시원스러운 데서 출발한 것으로 꽃을 보고 흥이 발동한 것이니, 그 기상이 진실로 추어줄 만하나, 고형산은 주량을 채우려는데 지나지 않은 것이니, 어찌 술이나 마시는 사람이 아니겠는가. 하물며 공유물과 사유물은 구분이 다른 것이니, 문경공은 호걸스럽고 고공은 거칠다 하겠도다. 19)

여기에서는 동시대의 두 인물 문경공 신용개(申用溉: 1463-1519)와 고형산(高荊山: 1453-1528)의 음주를 비교한다. 이들은 조선 초기의 인물인데 이 기록을 수재하고 있는 『기재잡기』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17세기에 쓰여졌다. 인물들이 살았던 시점과, 사건이 기록된 시점 사이에 2세기 가까운 시간적 간극이 있다. 『기재잡기』 1·2권에는 ‘역조구문(歷朝舊聞)’이라 하여 조선 초기부터 명종에 이르는 역대의 사화를 적었다. 역대의 사회이기는 하지만, 이 이야기는 전대 문헌의 것을 그대로 옮겨 적은 것이라기보다는 편찬자의 기억 속에 있던 것을 다시 정돈하고 해석한 것이다.²⁰⁾ 이 과정에 인물들의 행동을 평가하는 새로운 관여한 것처럼 보인다.

논평에서 잘 드러난 것처럼 신용개과 고형산의 일은 서로 비교된다. 신용개와 고형산은 모두 혼자 술을 마시면서 다른 사람과 함께 술을 마시는 것처럼

19) 『기재잡기』 2권,

20) 이강욱, 「『기재잡기』 연구-일화의 원천과 서술방식을 중심으로」, 『진단학보』, 91집, 296면.

말한다. 신용개에게 수작의 대상은 8개의 국화분이었고 고흥산에게 그 대상은 애초 약속이 없던 옛 친구, 서리와 하인, 천막의 기둥이다. 그들이 손님을 초청하는 것처럼 하여 술과 안주를 준비하게 한 것은 같지만 음주의 동기가 매우 다르다. 문경공의 음주는 국화의 향에 대한 흥취에서 야기되었지만 고흥산의 음주는 술을 마시고자 하는 욕심에서 비롯된다. 술의 출처도 다르다. 문경공은 자신의 술을 마셨지만 고흥산은 공관의 술을 마신다. 문경공의 음주는 그 ‘기상’을 칭찬할 만하지만 고흥산의 음주는 그냥 음주일 뿐이다. 결국 문경공은 호방하다고, 고흥산은 거칠다고 평가된다.

음주는 호방한 것일 수도 있고 거친 것일 수도 있다. 여기에는 분명한 위계가 있다. 그냥 먹고 마시는 것은 ‘기상’을 가지고 먹는 것에 비해서는 천한 것이다. ‘기상’을 가지고 먹는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그것은 음주의 동기, 술의 출처와 관련을 가지는 듯하지만 그 외 어떤 독특한 기운, 즉 아우라를 수반한다. 그것은 술을 마시는 배경 즉, “둥근 달이 떠 빛이 대청 안으로 들어와 꽃빛은 난만하고 달빛은 명랑”할 때라든지, 8개의 국화분에 은잔으로 따른다든지, 각각 두 잔씩 마시고 그친다든지 하는 것들과도 관련된다. 그윽하고 조용한 분위기, 고급스런 술잔, 절제된 음주 등이 모두 그런 ‘기상’을 형성하는 요소들이겠지만 무엇보다도 국화분을 대상으로 술을 마신다는 고상한 의도와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자연친화적 정신세계가 ‘기상’을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이 기상은 내면의 아름다움과 관련이 있다.

문경공의 음주가 국화라는 자연의 대상을 가지고 있으며 그 외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윽함, 조용함, 고급스러움, 절제됨의 고상한 ‘기상’으로 이루어진, 질적이며 정신적인 것이라면 고흥산의 음주는 이와는 여러모로 대립적이다. 안주 상자를 탐하고 술 한 동이를 순식간에 마시며, 그때마다 이유를 대는 고흥산의 음주는 양적이며 물질적인 음주라고 할 수 있다. 고흥산의 음주는 조선 초기 주당들의 호음과 유사하다. 고요/소란, 질적/양적, 정신적/물질적 대립축은 얼마나 마시는가와 어떻게 마시는가의 대립축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 일화에서 얼마나 마시는가가, 어떻게 마시는가에 비해 저급한 것으로 평가된다. 『기재잡기』의 이 일화는 ‘어떻게 마시는가’라는 관점에서 조선 초기의 인물들을 재조명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어떻게 마시는가’의 문제가 이 시기에 와서 음주 행위를 평가하는 새로운 시각이 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호음에 대한 태도가 시대에 따라 변하면서 조선 초기의 호음하던 인물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기도 한다. 이는 조선 초기 고래처럼 술을 마신다고 해서

세조로부터 ‘경음당(鯨飲堂)’이라는 별칭을 받았던 유명한 주당, 홍윤성(洪允成)에 대한 평가의 변화를 통해서 알 수 있다. 홍윤성은 많은 일화에서 포악한 인물로 평가되는데,²¹⁾ 조선 초기 일화에서는 비교적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필원잡기』에 있는 홍윤성의 일화를 보자.

위평공(威平公) 홍윤성(洪允成)이 젊은 나이에 정승이 되어 집이 매우 부호하였다. 날마다 귀빈을 초대하여 연회를 개최하니, 음식이 풍부하고 정결하여 그 비용이 만 전(萬 錢)씩이나 되었으니, 비록 하증(何曾)이라 할지라도 능히 이를 따르지 못했을 것이다. 위평은 주량이 매우 강한지라, 당시 열성공(烈成公) 황수신(黃守身)과 정선공(靖宣公) 김하(金何)가 주량이 위평과 서로 대적할 만하여 비록 종일 마음껏 마셔도 조금도 취한 빛이 없었다. 광릉(세조)이 일찍이 위평을 별호하여 경음당(鯨飲堂)이라 하고, 도서(圖書: 도장)를 새겨 하사하였다. 이웃에 한 선비가 있었는데, 또한 술 마시는 것을 좋아하여 일찍이 명함에 글을 써 성명을 통하기를,

주인도 술고래 객도 술고래 鯨飲主人鯨飲客
주인이 마시는데 객이 어찌 사양하리 主人鯨飲客何辭

하니, 한때 서로 전해가며 웃었다.²²⁾

『필원잡기』의 이 일화는 홍윤성에 대해 직접적으로 평가하고 있지 않다. 편찬자는 홍윤성의 호사스러운 잔치와 호음, 그리고 그로 인한 에피소드들을 세세하게 기록하고 있으며, 세조가 그에게 내린 장난스러운 별호를 비교적 객관적으로 서술한다. 그러나 이러한 어조들은 객관적이면서도 동시의 호의적으로 보인다. 세조가 별호를 하사한 에피소드나, 객과 주인이 스스로를 술고래라고 통성명하는 이야기를 웃으며 전한다는 것은 사건의 내용이나 성격 자체가 밝고 긍정적이다. 『필원잡기』의 편찬자인 서거정이 홍윤성과 동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그의 위세로 인해 사치와 호음에 대해 부정적으로 언급

21) 홍윤성 일화는 『필원잡기』 외에도, 『오산설림초고』, 『용재총화』, 『청파극담』, 『기재잡기』 등에 모두 수록되어 있다.

22) 洪威平允成, 早年入相, 家極豪富, 日招佳賓開讌會, 宴品豐潔, 費不下萬錢, 雖何曾不能過也, 威平酒量甚雄, 時黃烈成公守身金靖宣公何, 酒量與威平相敵, 雖終日痛飲, 了無醉色. 光陵嘗(?)號威平, 曰鯨飲堂, 刻圖書賜之, 隣有一儒士, 亦好飲, 嘗投刺內謁云, 鯨飲主人鯨飲客 主人鯨飲客何辭. 『필원잡기』 2권.

하기가 어려웠을 수도 있다. 그러나 서거정은 스스로가 당대 이름난 주당이 었다. 그는 『필원잡기』에서 호음의 주체들에 대해 여러 차례 서술한다. 이러한 정황을 참조하면, 서거정은 홍윤성에 대해 비판할 수 없는 처지였다고 보다는 비판할 여지가 없는 처지였다고 할 수 있다.

반면 『기재잡기』는 17세기, 홍윤성과 별 연고가 없는 박동량([朴東亮, 1569~1635)에 의해 편찬되었는데, 홍윤성에 대해 부정적 평가와 긍정적 평가를 모두 실고 있다. 그 평가는 “대개 공의 천성이 엄하고 혹독하여 법도를 지키지 않는 일이 많았으나 가끔 하는 일이 기발하기가 이와 같았다.”라고 하였다.²³⁾ 이 평가는 혹독함/기발함으로 대별되는데, 『기재잡기』는 각각을 입증할 수 있는 에피소드들을 기록한다. 술 관련 에피소드는 그의 ‘기발함’을 보여준다. 이 에피소드는 길어서 요약적으로 설명하면 이렇다. 홍윤성의 하인은 그의 위세를 믿고 밤에 나돌아 다니기도 하였다. 포도부장(捕盜部將) 전임(田霖)은 홍윤성의 하인들을 결박해서 그에게 데려갔다. 그리고 하인들을 잘 단속해달라고 하며 공에게 누가 미칠까 두렵다고 말했다. 그러자 홍윤성은 전임을 매우 마음에 들어 하며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런 좋은 사람을 어찌 서로 알게 되기가 늦었을까. 자네 술은 얼마나 마시며, 밥은 얼마나 먹는가?” 전임이 대답하기를, “오직 공께서 명하시는 대로 먹겠습니다.”하니, 곧 밥 한 대접에다가 생선과 채소를 섞어 세상에서 말하는 비빔밥과 같이 만들고 술 세 병들이 되는 한 잔을 대접하니, 전임이 두어 술갈에 그 밥을 다 먹어 치우고 단숨에 그 술을 들이켰다. 공이 더욱 기쁨을 이기지 못하였다.²⁴⁾

앞서 언급한 홍일동의 일화에서처럼 여기에서도 대식(大食)과 호음(豪飲)은 서로 연관되어 있다. 전임의 대식과 호음은 홍윤성을 기쁘게 하는데 이는 전임을 ‘좋은 사람’으로 생각했던 홍윤성의 판단을 재확인시켜 주는 계기가 된다. 누차 언급한 것처럼, 위장의 크기가 사람됨의 크기인 것처럼 생각하는 이런 정황은 조선 초기의 술 문화를 특징짓는 대표적 특징이었다. 조선 초기는 호음에 대해 긍정적 가치를 부여하던 시기였다. 전임의 음주량은 내면적 강대함을 암시하는 하나의 기호로 홍윤성에게 읽힌다. 『필원잡기』에서 본

23) 皆公天性嚴酷，多不循法度，而時時行事卓犖又如此。『기재잡기』 1권,

24) 如此好男兒，何相見之晚耶。爾有酒量幾何，食量幾何。霖曰，惟公命耳。遂以飯一盆，襍以魚菜，如俗所爲混沌飯，酒一角杯可容三壺者饋之，霖乃數匙而盡其飯，一倒而傾其盃，公尤不勝。『기재잡기』 1권,

것처럼, 이는 홍윤성의 호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사항이다.

조선 중기에 편찬된 『기재잡기』에서는 홍윤성의 긍정성과 부정성을 모두 형상화했지만 조선 중기 이후 편찬된 잡록들은 대부분 ‘혹독함’으로 표상되는 홍윤성의 부정성에 초점을 맞추어 전승된다.²⁵⁾이렇게 홍윤성에 대한 긍정에서 긍정/부정으로, 다시 부정으로 달라지는 것은 그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조선 초기에 억압되어서라기보다는, 조선 중기 이후에 그에 대한 인식이 변화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에 대한 인식의 변화는 신용개와 고형산의 일화에서 알 수 있듯이, 호음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관련되어 있다. 조선 중기 이후 호음에 긍정적 의미를 부여하지 않게 되고 호음이 긍정적 내면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게 되면서 조선 초기 대표적인 주당이었던 홍윤성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인 것에서 부정적인 것으로 바뀌게 된 것이다. 술 관련 일화들 보다는 그의 ‘혹독함’을 보여주는 일화들이 주를 차지하게 되면서 긍정적 평가보다는 부정적 평가를 내재하게 된다. 이는 조선 중기 이후 호음과 그것이 동반한다고 생각되는 인격에 대한 믿음이 사라지고, 내면의 강함과 크기보다는 내면의 아름다움 혹은 내면의 도덕성이 중요한 것으로 부각되었던 문화적 정황을 추론하게 한다.

5. 결론을 대신하여

『공충자(孔叢子)』 「유복(儒服)」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

예로부터 전해지는 속담에, 요와 순은 천 잔의 큰 술잔의 술을 마시고, 공자는 백 잔을 마셨는데, 자로는 헉헉거리면서도 오히려 한 잔밖에 마시지 못했다.

[昔有遺諺 堯舜千鍾 孔子百觚 子路嗑嗑 尚飲一榼]

이것은 인격과 주량을 비례적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본 가장 오래된 전고이다. 여기에서는 인격이 훌륭한 사람일수록 술을 잘 마신다는 것을 전제한다. 술을 잘 마신다고 해서 인격이 훌륭해지는 것은 아니겠지만 훌륭한 인격은 주량을 통해 드러날 수도 있는 것이다. 조선 초기 술 관련 설화에서 보이는,

25) 홍윤성의 포악한 행동을 기술하고 그에 대해 본격적으로 비판하기 시작한 것은 임진왜란 무렵부터라고 할 수 있다. 김현룡, 『한국문헌설화』 1권, 건국대학교 출판부, 1998, 166면.

음주와 내면의 강건함이 매우 긴밀한 관계를 가진다는 믿음은 아마도 이러한 기초 위에 있었던 듯하다. 이러한 믿음은 술을 마시고 싶은 인간의 육체적 욕망을 쉽게 인정하고 받아들이도록 한다.

물론 이것은 조선 초기에, 양반들에게만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사안이었다. 양반들만이 금주령에도 불구하고 술을 마실 수 있었다. 양반들만이 음주 후에 내면의 강건함을 보일 수 있는 것으로 믿어진 듯하다. 양반들이 보여준 것처럼, ‘술을 마셨음에도 불구하고’의 내면의 강건함을 보여주는 인물들이 조선 초기 다른 계층의 일화에서는 발견되지 않는다. 이는 술과 정신의 강건함을 연결시키는 것이 가능한 계층이 매우 제한적이었다는 사실을 암시한다. 물론 이는 잡록에 수록된 대부분의 일화가 양반들의 것이기 때문에, 다른 자료가 부족한 상황에서 가질 수 있는 추론적 진실일 뿐이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것처럼 조선 초기에는 먹고 마시는 문제를 주체의 부귀함과 연관 짓는 담론이 존재했다. 호음과 대식이 유의미한 구별짓기의 기호가 될 수 있었던 것이다.

조선 초기의 술 문화가 음주의 양을 중시하면서 그것이 음주자의 내면적 크기와 강함을 드러내는 것으로 이해하고자 했다면 조선 중기 이후의 술 문화는 음주의 질을 중시하면서 그것이 내면의 아름다움이나 도덕성을 드러내는 것으로 이해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변천을 가능하게 한 것은 무엇일까? 그에 대해 알기 위해서는 먼저 조선 초기 음주의 양을 중시하는 술문화가 어떤 효용적 가치를 가지는 것이었는가 살펴보아야 한다.

조선 초기에 술을 마음대로 마실 수 있다는 것은 그 자체로 양반의 집단적 정체성이 되기도 했다.²⁶⁾ 다른 모든 취향과 마찬가지로 음주는 사람들을 묶어주기도 하고 단절시키기도 한다. 취향이야말로 인간이 가진 모든 것, 즉 인간과 사물 그리고 인간이 다른 사람들에게 의미할 수 있는 모든 것의 원리이기 때문이다. 취향을 통해 사람들은 스스로 구분하며, 다른 사람들에 의해 구분될 수 있다.²⁷⁾ 이 정체성은 경제적 가치와 정치적 가치를 기반으로 하는 것처럼 보인다. 일단 조선 초기 호음의 경제적 가치를 살펴보자.

주지하다시피, 조선 초기 음주가 양반들의 집단적 정체성과 관련을 맺는 것

26) 강명관은 조선시대 마음대로 술을 마실 수 있는 이들은 양반관료였다고 하면서 각 관청마다 주고(酒庫:술창고)가 딸려 있었을 뿐 아니라, 영접·전송 등의 행사에 모두 술을 사용하였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다. 강명관, 『조선의 뒷골목 풍경』, 푸른역사, 2003, 125면.

27) 베에르 부르디외 저, 앞의 책, 115면.

은 금주령이라는 특수한 조건 하에서이다. 양반들의 음주는 그 자체로 금주령이라는 법적 금기에서 비교적 자유롭다는 것을 의미했다. 또한 금주령의 선포 동기를 고려할 때, 양반들의 음주는 경제적 속박에서 비교적 자유롭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했다. 음주는 배를 채우는 목적이 아니라 유희의 목적으로 곡식을 소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시대의 호음과 대식은 경제적으로 우월함을 표현하는 기호, 구별짓기의 기호가 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기호는 경제적 우월함을 표현하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인격적 우월함을 가세시키게 된다.

그렇다면 왜 호음은 더 이상 긍정적 의미를 가지지 않게 되었을까? 이를 위해서는 금주령 시행의 원인에 대해 조금 더 천착해 보아야 한다. 16세기 이전까지 금주령은 주로 자연적 재해로 인한 흉년이나 춘궁기 때 간헐적인 미곡 공급 부족을 막기 위한 차원에서 취해졌다. 그러나 16세기는 자연적 요인 외에 물가 등귀나 사치향락 문화의 만연과 같은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인해 금주령이 내려졌다. 또한 16세기는 검약령(儉約令)이 자주 내려진 시기이기도 하다.²⁸⁾ 금주령과 검약령을 둘러싼 이런 제반 사정은 16세기 이후 조선이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졌음을 짐작하게 한다. 누구나 많이 마실 수 있기에 많이 마시는 것에는 더 이상 경제적 가치가 없다.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지면서 호음은 그 자체로 구별짓기의 기호로 기능하지 못하게 된다. 또한 호음은 더 이상 내면의 크기와 강함을 드러내는 기호로 기능하지도 못하게 된다. 고형산의 인격이 거칠다고 평가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호음으로 드러나는 인격은 더 이상 긍정되지 않는다. 인격은, 음주를 통해 드러나기는 하되, 인정되는 방식으로 드러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 신용개의 경우처럼, 인정되는 방식으로 드러날 때에만 음주인의 내적 자질은 칭찬받을 만한 것이 된다. 인정되는 음주의 방식이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하면서, 이제 얼마나 마시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마시는가가 주요한 관심사가 된다. 이때가 되면, 차별화된 음주의 방식이야말로 술을 마시면서도 인격의 훌륭함을 드러내 보일 수 있는 구별짓기의 기호가 되는 것이다.

그런가하면 호음을 통해 드러나는 양반들의 내면의 크기와 강함은 조선 초기 특수한 정치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었다. 이사철, 홍일동, 홍윤성, 한봉련

28) 이정수, 「16세기의 금주령과 검약령」, 『한국중세사연구』, 14집, 한국중세사학회, 2003, 277면.

등은 모두 세조 때를 살았던 인물들이다. 세조는 쿠데타 음모를 진행 중이던 시절부터 회심의 술자리에서는 바지춤에 숨겨 갖고 다니던 표주박을 꺼내 한 잔 술을 나누어 마심으로서 은밀한 뜻을 다져 자기 사람으로 만들었다.²⁹⁾ 최승희는 세조 시대 정치를 ‘주석정치(酒席政治)’라고 단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세조는 왕위의 명분과 정통성에 흠이 있는 임금이었기 때문에 친왕세력을 확보할 필요가 다른 왕들보다 많았고 그 때 친화책의 일환으로 술자리를 베풀었다는 것이다.³⁰⁾ 세조가 자신의 뜻에 따르는 사람들을 모으고, 그들을 기반으로 정치를 해 나가는 과정에서 술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술이 사람들을 모이고 화합하게 하는 역할을 했다. 술은 내면을 확인하는 대표적 기호였다. 이러한 정치권의 분위기는 술을 잘 마시는 사람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가능하게 하는 데 일조했다. 내면의 강함과 크기는 바로 정치적으로 불안한 상황에서 동지와 화합하고 적을 물리치는 데 필요한 자질로 생각되던 것은 아니었을까 한다.³¹⁾ 만약 음주가 경제적으로, 제도적으로 부정적인 것으로 여겨지던 때에, 술꾼에 관한 이야기가 긍정적으로 형상화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들이 불안한 시대에 크고 강한 내면을 가지고 있었다고 믿어졌기 때문이다.

정리하자면, 술과 음식의 경제적 회소성과, 세조 시대라는 정치적 불안정 속에서 조선 초기 음주의 양과 그것을 통해 드러나는 내면의 크기, 강건함은 가치를 가질 수 있었다. 이런 정황은 일차적으로 왕의 교체와 제도의 변화로 인해 바뀔 수밖에 없었다. 16세기 조선은 정치적 안정기에 들어서면서 성종 때 향음주례(鄉飮酒禮)를 제정한다. 향음주례는 향촌의 선비, 유생들이 학교, 서원 등에 모여 학덕과 연륜이 높은 이를 주빈으로 모시고 술을 마시는 향촌 의례의 하나이다. 이는 성종 5년인 1474년에 『국조오례의』가 완결되면서 정비된 것인데³²⁾ 특히 술을 권하고 사양하는 예법이 잘 정리되어 있다.³³⁾ 향촌의 공적 술자리의 규약인 향음주례의 정비가 다른 사적 술자리 문화에도

29) 남태우, 『술술술 주당들의 풍류세계』, 창조문화, 2001, 185면.

30) 최승희, 『조선전기 정치사 연구』, 지식산업사, 2000, 366면.

31) 『오산설림초고』에는 세조가 수양대군 시절 홍윤성을 만나게 된 일화가 나온다. 홍윤성이 10여명의 하인을 물리치고 배를 저어갔다는 것인데, 그의 물리적 힘이 긍정적으로 그려진다. 앞서 언급한 한봉련 일화에서 한봉련은 내면의 강건함을 보여주지 못하지만 뛰어난 사냥꾼이었기에 세조의 지우를 받았다. 당시에 내적 강건함 뿐만 아니라 물리적 힘, 육체적 강건함 역시 중요하게 평가받았던 요소였던 듯하다.

32) 이상희, 『한국의 술문화』 2권, 도서출판 선, 2009, 46면.

33) 이상희, 앞의 책, 2권, 35면.

직접적인 영향을 행사했는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반드시 향음주례가 아니라 하더라도, 『국조오례의』와 같은 유교적 예악문물이 정비되면서 지속적으로 유교적 가치 질서가 내면화 되는 시대적 분위기는 술자리의 변화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결국 조선 초기와 조선 중기의 서로 다른 음주 문화는 유교적 가치의 내면화 과정으로 총체적 설명이 가능하다.

유교적 가치는 ‘중의 원리’를 중시다. ‘중’이란 어느 한 쪽에 치우침이 없이 딱 들어맞는 것, 그 정도가 적당한 것, 법도에 맞는 것을 의미한다. ‘哀而不傷’, ‘樂而不淫’의 심미관은 “감정이 극단으로 흐르지 않고 균형과 절제를 이루어야 한다³⁴⁾”는 유가적 심미관이지만 이것은 유독 심미관에만 한정되지는 않는다. 극단적 감정 상태를 부정적으로 보는 이런 경향은 감정 상태뿐만 아니라 그것을 야기하는 행동들에 대한 지침으로 기능할 수 있다. 조선 초기, 지나친 음주는 ‘傷’과 ‘淫’의 상태를 야기하는 부정적 행동들이었다. 그러나 앞서 술꾼에 관한 일화는, 지나친 음주가 반드시 ‘상’과 ‘음’의 극단적 감정을 야기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취하지 않은 정신이 취한 몸을 제어할 수 있기에, 무절제한 음주행위, 즉 상과 음의 행위가, 반드시 상과 음의 정신 상태를 야기하는 것은 아니다. 조선 초기 무절제한 음주에 대한 긍정적 시선은, 상과 음을 야기할 수 있는 잠정적 행동이 당시에는 제재(制裁)의 대상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반면 조선 중기에 와서 ‘상’과 ‘음’의 행동은, 그것이 ‘상’과 ‘음’의 감정을 야기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제재의 대상이 된다. 이때가 되면 음주의 결과로 드러날 수 있는 ‘상’과 ‘음’의 감정뿐만 아니라 그것을 야기할 수 있는 잠정적 행동, 즉 음주 행위에 대해서까지 경계를 하게 된다. 조선 초기에 비해 ‘중의 원리’가 포괄적이면서도 심층적으로 적용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음주 행동에 대한 경계는 지나친 음주의 양에 대한 경계로 드러난다. 음주를 경계하는 담론들이 본격적으로 생산되는 것도 이 시기이다.³⁵⁾ 많이 마시지 않게 되면서 중요한 것은 어떻게 마시는가의 문제가 된다. 중의 원리에 따라 적당한 양을 격식에 맞게 마시는 것이 술자리의 예를 드러내는, 구별짓기의 새로운 기호가 된 것이다.

조선 초기에 술을 통해 내면의 크기와 강함을 문제 삼았다면 이후에는 술을

34) 신은경, 『풍류: 동아시아 미학의 근원』, 164면.

35) 중종 9년(1514) 이행(李荇, 1478-1534)이 쓴 주계(酒戒)를 비롯, 정사룡, 권호문, 정철 등의 계주 시나 계주문등은 모두 16세기의 소산이다.

통해 드러나는 내면 아름다움이나 도덕성이 더욱 크게 문제시된다. 조선 후기에 올수록 집단으로 마시는 술/혼자 마시는 술, 떠들썩하게 마시는 술/조용하게 마시는 술, 무절제한 술/ 절제된 술의 이분법이 강화되고 이것들 간의 위계가 더욱 확고하게 자리 잡게 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어느 시대건, 음주는 단순히 먹고 마시는 문제가 아니라 내면을 유추할 수 있는 기호이자 그러한 내면이 정당화될 수 있는 가치들을 함축하는 유의의미한 기호가 된다.

**주막의 근대적 지속과 분화
: 식민지시기 주막의 변천사**

주 영 하

(한국학중앙연구원)

주막의 근대적 지속과 분화 : 식민지시기 주막의 변천사

◆ 목 차 ◆

1. 주막은 무엇인가?
2. 일본인 경찰 이마무라 도모에가 본 식민지시기 주막
3. 20세기 초반의 주막
4. 내외주점의 변신
5. 색주가의 퇴폐성
6. 근대적 외식의 탄생과 주막

1. 주막은 무엇인가?

오늘날 한국사회에서 ‘주막(酒幕)’이란 말이 던져주는 이미지는 무엇일까? 소설 『토지』를 대상으로 문학적 시공간에 대해 연구한 조운아의 글¹⁾에서는 주막이 소문을 전하여 사건을 일으키는 공간이며, 동시에 사건의 현장이 되기도 한다고 했다. 일제시대의 지역사회에서 일어나는 인간관계를 묘사한 소설 『토지』에서 주막이란 공간은 그 자체가 인적 교류가 활발하게 전개되었던 곳이었다는 분석이다. 그런 만큼 주막에 대한 이미지는 술집이면서 여관이라는 이중적 요소가 간여하는 듯하다.

이에 비해 민속학 분야에서 주막에 대해 논의한 배도식의 글²⁾을 보면, 상당히 낭만이 깃든 공간으로 묘사되어 있다. 즉 “옛주막은 흐뭇하고 안온했다. 누구나 쉬어갈 수 있는 곳이고, 주모가 있어 술단지를 휘휘 저어서 국자로 한 사발 그득 퍼 주는 막걸리가 있는 곳이었다. (중략) 그래서 먼 길을 걸어 피곤해진 나그네에게는 꿈속처럼 안식처가 되었기에 고개 아래 주막을 향해 발길을 재촉했다.” 그러면서 배도식은 주막의 기원을 신라시대 김유신이 어

1) 조운아, 「『토지』에 나타난 주막 크로노토프」, 『태릉어문연구』 8호(서울:서울여자대학교국어국문학회, 1999)

2) 배도식, 「옛 주막의 민속적 고찰」, 『한국민속학』 15집(서울:민속학회, 1982), 85쪽.

렸을 때 다녔던 술집 천관(天官)을 꼽는다. 하지만 이런 식의 역사적 비정은 단지 주막이 술집이라는 전제에서 과거 역사 사실을 들추어낸 것에 지나지 않는다.

더욱이 배도식의 글이 지닌 가장 큰 약점은 통시적 시점을 무시하고 단지 옛 추억으로 고로(古老)의 이야기를 통해서 주막의 모습을 설명하는 데 있다. 그러나 그가 만난 고로는 결코 조선후기의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다. 오히려 일제시대와 그 이후에 경험했던 주막에 대한 기억이 추억으로 남아있을 가능성이 많다.

2. 일본인 경찰 이마무라 도모에가 본 식민지시기 주막

이런 점에서 1909년 12월, 당시 조선통감부 경시(警視)로 재직하던 일본인 경찰 이마무라 도모에(今村鞆, 1870~1943)가 쓴 글이 시사하는 점도 많다. 왜냐하면 이마무라는 당시 조선에 거주하던 일본인들에게 조선사정을 밝히기 위해 글을 썼기 때문이다. 그 만큼 외국인의 눈에 비친 주막의 사전적 설명이 이 글에 담겨 있다. 아래에 그 글을 인용한다.

“주막(혹은 술집) : 주막은 원래 매주점(賣酒店, 술을 파는 집)의 명칭(막이라는 글자는 작은 집을 의미하는 것으로 묘지를 지키는 작은 집을 ‘묘막(墓幕)’이라고 부르는 것과 같다)이다. 도회지의 주막은 음식점 전문이지만, 시골에서는 여관을 겸하는 것도 있다. 또 시골에서는 간혹 갈보(蝸蝓)를 두거나 주부(主婦) 스스로 손님을 접대하기도 하는 등, 매춘의 성질을 보태는 곳도 있다. 전국에서 그 수가 가장 많고, 주요 지역을 가로지르는 가도(街道) 주변, 시가지, 도읍(都邑), 선착장, 시장(市場) 소재지 등은 물론이고 어떤 산간 벽지에도 없는 곳이 없다. 여기를 출입하는 데는 아무런 계급 구별도 없다. 영업 방법은 보통 손님에게 술과 음식을 제공하는 일을 주로 한다. 술은 탁주(濁酒)이지만 드물게는 소주(燒酒)와 약주(藥酒)를 양조하는 경우도 있다. 제공되는 음식은 밥과 부식물, 고기 등으로, 밥값은 지역에 따라 다르다. 가장 싼 것은 3-4전부터, 가장 비싼 것은 20전 범위 안이다. 숙박을 하려해도 별도로 침구를 제공하지 않는다. 다만 기름칠을 한 목침(木枕) 1개를 준다. 숙박료는 받지 않고 술값과 음식 값만 받는다. 음식을 필요로 하지 않으면

무료숙박 하는 것도 공간이 있을 경우에는 마음대로 해도 된다. 영업자는 누군가의 첩(妾)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소자본으로 비교적 이익을 낼 수 있는 사업이라고 한다. 구시대(조선시대)의 주막에는 부역(賦役)을 면제해주고, 그 대신에 공용서류(公用書類) 등을 차례대로 전하여 보내는 일을 하는 풍습이 남아 있는 곳도 있다.”³⁾

이 글을 통해서 적어도 당시의 주막이 각기 다른 형태로 전개되고 있었음을 확인한다. 즉 주막은 그 한자에서 알 수 있듯이 술집이었다. 하지만 1900년대 초반 도회지의 주막은 음식점의 기능이 강했고, 시골의 주막은 여관을 겸했다. 심지어 어떤 주막에서는 매춘을 제공하는 곳도 있었다. 아울러 술을 직접 양조하였다. 그런데 앞의 글에서 주목할 점은 술값과 음식 값만 받지, 숙박비를 받지 않는다는 점이다. 따라서 주막은 일종의 술집이면서 동시에 음식점이었지, 결코 전문적인 여관은 아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무료로 숙박을 제공한다는 점에서는 여관의 기능도 했다. ‘주막’은 상당히 전근대적인 존재이면서 동시에 시기적으로 20세기 중반까지 한국사회에서 실존했던 근대적 존재였다. 이 주막이 1970년대 이후 사라졌다는 사실은, 이 시기에 와서 한국사회의 일상적인 생활문화가 근대화의 길에 접어들었을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다⁴⁾.

3. 20세기 초반의 주막

『조선왕조실록』 고종 13년(1876) 음력 2월 3일의 첫 번째 기사는 조선이 일본과 수호조규(修好條規)에 서명한 일로 시작한다. 수호조규의 제5관에는 경기·충청·전라·경상·함경 5도(道) 가운데 연해의 통상하기 편리한 항구 두 곳을 골라 개항을 한다고 했다. 또 제8관에는 조선국에서 지정한 각 항구에 일본국 상인을 관리하는 관청을 수시로 둔다는 내용도 들어있다. 이로부터 7년이 지난 1883년 1월 1일 인천항이 개항되었다. 개방과 개항은 세계 체제와의 만남을 동반한다. 필연코 외국인의 조선출입이 그 전에 비해 쉬워졌고, 외국의 문물도 함께 들어왔다.

3) 今村 軀, 『朝鮮風俗集』(訂正 3版)(京城:ウツボヤ書籍店, 1919), 271쪽.

4) 周永河, 「韓國における生活文化研究と生活財生態學」, 『2002年ソウルスタイル:研究と展示の評価-日本國立民族學博物館調査報告44』(大阪:日本國立民族學博物館, 2003)

당시 세계 체제의 중심이었던 서유럽과 미국, 그리고 메이지유신(明治維新)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던 일본 등에서 주류를 이루었던 자본주의가 조선에서도 시작되었다. 사농공상(士農工商)의 계급적 서열을 중시했던 조선의 사대부는 이제 더 이상 자연과 합일하는 유자(儒者)로만 남아 있기가 어려워졌다. 단지 청나라만을 이해하면 된다고 믿었던 이웃에 대한 정보도 더 이상 쓸모가 없었다. 전에도 간혹 표류민으로 조선에 온 서양인을 본 적은 있지만, 이제 서울이나 지방 도시에서 서양인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는 기회도 잦았다. 자본주의와 합리주의, 그리고 산업과 상업이 중심을 이루는 ‘근대’가 시작되었다.

종래의 복합적 성격을 지녔던 주막 역시 근대의 도래와 함께 분화되는 과정을 겪게 된다. 단지 술과 음식만을 판매하고 무료 숙박을 제공하던 주막은 19세기 말이 되면 근대적 모습을 보이기 시작한다. 여기서 ‘근대적’이라는 표현은 전문적인 분화가 일어났다는 말이다. 그래서 주막은 그 기능에 따라 주점이나 선술집이라는 이름으로도 불렸고, 내외주점(内外酒店)이나 색주가(色酒家)가 활발하게 생겨났다. 이를 통틀어서 주막이라고도 불렀다. 1899년4월 28일자 『독립신문』에는 서울 정동에 있었던 ‘빼이노’라는 서양식 술집도 한국어로 주막이라 칭했다⁵⁾.



그림1> 20세기 초반의 주점, ‘주점(酒店)’

주막이란 말 대신에 ‘주점(酒店)’이란 용어가 쓰이기 시작했다. 20세기 초반

5) 그 전문은 다음과 같다. “정동서 외국사람 주막 하는 빼이노씨 전 [가게]에서 작일 [어제]에 각색 세간을 팔려고 미리 광고 하였더니 마침 공교한 일이 있어서 오월 이일 상오 열시로 물너 [바꾸어] 공박 [공포] 하려 하는데 마닐라 여송연과 이집트 권연초와 법국 [프랑스] 과 영국과 미국에 여러 가지 다과와 총과 룡혈포에 마질 탄환과 탁자와 글씨 쓰는 여러 가지 상과 침방과 목욕방 세간들과 평상과 여러 가지 교의들과 접시와 잔과 화덕이며 또 음식 만들기 좋은 미국 화덕과 또 여러 가지 좋은 물건을 많이 팔 터이니 참 군자는 왕임 하심을 바라옵나이다. 정동 빼이노”

에 촬영했을 것이라 여겨지는 한 장의 사진에는 ‘복덕방(福德房)’과 ‘주점(酒店)’이란 글이 쓰인 점포가 등장한다. 시가지가 형성된 한양에 기와를 올린 점포가 보인다. 한 칸에 낸 문에는 무명에 복덕방과 토지·가옥을 구입한다는 한자가 쓰인 천이 늘어트려졌다. 문턱에 갓을 쓰고 두루마기를 입은 사람이 걸터앉았다. 앞에는 등 없는 의자가 놓인 것으로 보아 여기에서 영업을 하는 모양이다. 그 오른쪽 처마에는 ‘주점·酒店’이라 쓴 등갓이 매달렸다. 문설주에는 하얀색의 천을 두 장 내렸다. 기와지붕 위에는 대나무로 만든 용수가 두 개나 올라가 있다. 아마도 사용하여 젖은 용수를 말리는 모양이다. 아직 ‘주세법(酒稅法)’이 본격적인 허가제로 바뀌기 이전이라 이런 주점에서 술을 직접 양조한 듯하다.

4. 내외주점의 변신

주점 중에서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 성업을 한 곳으로 내외주점이 있다. 내외주점이란 무엇인가? 1924년 7월 10일자 『동아일보』에는 ‘내동리명물’이란 기사에 의하면, 본래 내외주점은 몰락한 양반가의 부인들이 생계를 잇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차렸던 술집이었다. 이런 집의 사랑채에 손님이 들면 안채에서 주인 부인이 술과 안주상을 차려 하인을 시켜서 사랑채로 내가게 했다⁶⁾. 성리학적 이념이 관통했던 주점이 바로 조선후기의 내외주점이었다. 그러나 20세기에 들어와서 사민평등(四民平等)이 이루어지고 남녀 간의 내외 구분이 중요하게 생각되지 않게 되자 내외주점은 너무나 다른 양상으로 변했다. 앞에서 소개한 『동아일보』의 기사에도 이 같은 사정이 잘 나온다.

“청진동 명물은 부랑자들이 좋아하는 내외주점이다. 호수 육백호에 내외주점만 열한 집이나 되고 보니, 이 동리의 대표적인 명물로 당당하지 않습니까. 이 당당한 명물이 작년에는 삼십여 호 재작년에는 사십여 호나 있었답니다. 참 그때에야 굉장하였겠지요. 열 집에 내외주점 하나씩! 장관이었겠습니까. 내외주점의 역사를 캐어보면 옛날에는 이름같이 아낙네들이 술상만 차려 내보내고 내외를 착실히 하던 술집이었습니다. 이것이 차차 개명하여져서 내

6) 자세한 내용은 주영하, 『그림 속의 음식 음식 속의 역사-「조선」의 표상과 실재에 대해 다시 생각하다』 (과주:사계절, 2005), 150-155쪽을 참조할 것.

외법이 없어지고 술상 옆에 붙여 앉아 웃음을 팔면서 노래를 팔더니 결국에는 매음까지 하게 되어 요사이에는 내외주점 하면 밀매음이 연상되게 되었습니다. 내외주점을 찾아가면 으레 기름때가 피째재 흐르는 젊은 계집이 한둘씩 있지요.” 곧 이름은 19세기 때의 내외주점과 같았지만, 그 기능은 이른바 ‘기생집’과 다름없어졌다. 이것은 분명 근대가 조선에 제공해준 또 다른 퇴폐적 모습임에 틀림없다.

5. 색주가의 퇴폐성

이와 같은 내용을 지닌 술집으로 아예 그 이름에 본색을 드러낸 곳이 바로 색주가(色酒家)였다. 1914년 12월 10일자 『매일신보』에는 ‘기생(妓生)이 색주가’란 제목의 기사가 실렸다. 그 대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서울 봉래정(蓬萊町, 충무로 봉래동)에 사는 김대련(金大連)은 그의 딸 송희(松姬)를 데리고 경상북도 상주에서 서울로 올라와 처음에 궁동(宮洞, 서대문구 연희동) 김현진(金賢晉) 집에 살다가 주인의 생각으로 인사동에 사는 유소사(兪召史)에게 양손녀로 기생노릇을 시켜서 돈을 벌었고, 그 후 여러 집에 기생노릇을 시켜서 돈을 벌었다. 이야말로 기생이 아니라 색주가에 다름 아니라는 기사다. 즉 색주가는 그 이름 그대로 술과 매음을 하는 곳이었다.

1927년 7월 1일 『별건곤(別乾坤)』 잡지(138쪽)에는 차상찬(車相瓚)이 ‘편집국원총출(編輯局員總出) 내가 제일(第一) 창피하얏든 일, 기자 1인 1화-, 삼형제(三兄弟)가 색주가에’란 글이 실렸다⁷⁾. 화장을 하고 남색치마 입은 여

7) 기사의 전문은 아래와 같다. “창피! 창피 하니 이러한 창피가 또 잇겟습닛가. 내가 중학교에 단일 때 올시다. 그 때에 우리 형님 한 분은 엇더한 신문사에 기자로 잇섯고 또 한 분은 시골에서 학자임 노릇을 하얏습니다. 어니 해 녀름에 시골 잇는 형님이 서울에 잇는 우리 형테를 만나 보랴고 오섯습니다. 오라간 만에 삼 형테가 한자리에 모히니 그 깃뽀이야 엇지 다 말 할 수가 잇겟습닛가. 이러한 이약이 저러한 이약이 하다가 서울의 시가지 구경을 하랴고 나섯습니다. 그러자 마침내 도중에서 또 고향 친구 한 사람을 맞났습니다. 그는 우리 형님에게 술을 대접하겟다 하고 어디로 가자고 하얏습니다. 그도 물론 서울의 사정이 생소하고 우리도 비록 서울에 오랫동안 잇섯지 만은 그 때만 하야도 행세 체면을 엇지나 차리 엇든지 술 한잔을 함부로 먹지 안엿고 따라서 색주가가 무엇 인지 선술집이 무엇 인지 일름도 잘 알지도 못 하얏습니다. 네 사람이 이 골목 저 골목을 차저 다니다가 (그 전 우리는 남촌회동(南村會洞)에 잇섯다.) 결국 한 곳을 가니 기다란 술등에다 「별별악주가(別別樂酒家)」라고 크게 써 붙친 집이 잇섯습니다. 우리는 시골 술집에서 지등(紙燈) 다는 것을 보앗기로 서울에 술집도 그와 가티 등을 다럿거니 하고 무심히 드러가서 술이 잇소하고 차섯습니다. 대문을 드러스니 유두분면(油頭粉面)에 남치마 입은 녀자 삼사 인이 나오면서 「어서 드러옵쇼 하얏습니다.

자 3-4인이 방에 들어와서 술을 권하고 온갖 잡소리를 하며, 손님 무릎에도 앉아서 합반주를 하는 등의 모습에 깜짝 놀란 학생 시절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이미 앞에서 이마무라가 언급했듯이 1909년 지방의 주막에서는 ‘갈보’가 등장하기도 했고, 갈보를 두지 못할 경우 간혹 주모가 매음을 하기도 했다. 이미 조선후기부터 있었던 현상이라 여겨지지만, 20세기 초반에 들어와서 내외주점과 색주가의 형태로 ‘전문성’을 띄기 시작했다.

6. 근대적 외식의 탄생과 주막

외식의 탄생은 상업도시의 형성과 밀접한 관련을 맺는다. 전문적인 직업이 생겨나면서 사람들은 끼니를 해결하기 위해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음식점에서 식사를 한다. 이런 의미에서 전근대의 주막은 집을 떠나서 이동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마련되었던 시설이었다. 조선후기 한양과 개성만이 도시적 상가를 구성하고 있었기 때문에 내외주점이 있었다. 그러나 내외주점은 근대에 들어와서 ‘근대적 퇴폐성’을 지니게 되었다. 근대적 외식으로서 조선음식이 과연 제대로 자리를 잡았는가 하는 문제는 바로 전근대 시기 주막 혹은 여막 등의 음식점이 근대적으로 적응을 했는가와 관련된다. 나는 조선후기 주막이 전문적인 식당으로 자리를 잡지 못했다고 본다. 술을 먼저 대접하면서 그 안주로 끼니를 해결하도록 했던 조선후기의 주막은 결코 근대적인 의미의 전문적인 식당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심지어 숙박업소의 성격이 강했지, 결코 전문식당은 아니었다. 장국에 만밥 정도를 판매하던 식당이 19세기 말에 들어와서 근대적 도시공간으로 변해가기 시작한 서울에서조차 색주가와 내외주점, 그리고 주점 혹은 선술집으로 분화되면서 그 전문성에서 음식은 으뜸에 들지 않았다. 그 보다는 술을 팔고 매음을 하는 곳으로 주막이 바뀌었다.

음식을 상업적으로 판매하면서 전문적인 경영을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근대

그 때 까지도 우리는 다만 생각하기를 서울 술집은 녀자들이 의례 술을 팔거니 하얏습니다. 급기야 방에를 드러가니 웬걸이요. 기집들이 이방 저방에서 쏘다저 나오더니 연해 술을 권하며 「에웨라 노웨라」의 잡소리를 하며 이 사람 무릅에도 안고 저 사람 무릅에도 안즈며 또 합반주를 하느니 엇저느니 하니 삼 형제가 한 자리에 안저서 그 꼴이 무슨 꼴이 겠습닛가. 더구나 학생 신분으로 잇는 나로서야 그 미안하고 창피한 생각이 오죽 하얏겠습닛가.”

적 음식점의 출발을 결코 주막에서 찾기 어렵다. 주막은 술집이며, 그곳에서 술에 팔려 나오는 음식은 그 자체가 주인이 아니라, 안주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니 술집으로서의 면모는 지니고 있어도 음식점으로서의 모습을 찾기 어렵다. 이 점은 오늘날 한국음식점이 지닌 한계와도 맞닿아 있다. 주된 음식을 주문하면 반찬은 무료로 제공된다는 점은 오늘날 한국음식점이 지닌 장점이면서 동시에 단점이다.

Wine Communication

(소믈리에와 함께하는 와인이야기)

조 학 영
(송도파크호텔)

Wine Communication

(소믈리에와 함께하는 와인이야기)

◆ 목 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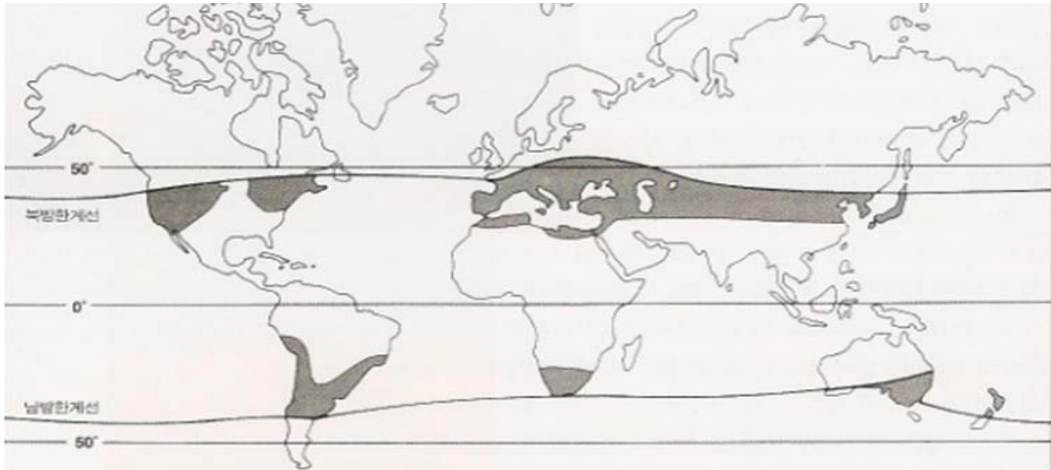
- I. 와인이란
 - 1. 와인의 역사와 분포
 - 2. 와인의 양조
 - 3. 포도 품종
 - 4. 각국 와인의 특징
- II. 와인 즐기기
 - 1. 와인의 보관과 선택
 - 2. 와인의 적정 온도
 - 3. 음식과의 조화
- III. Table Manner
- IV. Wine Tasting
- V. 와인과 건강

왜 와인을 알아야하나.

- 현대 사회에서 활동하려면 매너와 와인을 알아야한다.
- 비즈니스에서 와인을 통한 커뮤니케이션은 원활한 사업 진행과 인적 교류의 효과적 수단.
- 와인은 긴장을 풀어주며 하루하루의 삶을 느긋하고 여유롭게 해 준다.
 - 벤자민 프랭클린
- 적절한 시간에 적당량의 와인을 마시면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유지 할 수 있으며 소화가 잘되고 머리가 맑아지며 아름다워진다. - 히포크라테스

I. 와인이란

1. 와인의 역사와 분포



- 7000년전 흑해와 카스피해 사이 코카서스 산맥 남쪽 지역에서 발원
(現 그루지아) 이집트, 서유럽 전파
- 로마군의 필수 보급품 → 점령지로 보급
- 최후의 만찬 (성경에 500여 차례 등장)
- 15세기말 신대륙, 희망봉 경유 인도항로 → 미국, 칠레
- 아르헨티나, 호주, 뉴질랜드, 남아공 전파 → 종교, 식생활

2. 와인의 양조

- ① 양조용 포도 → 포도즙(juice) + 효모(yeast) → 발효(완전발효/부분발효) → 와인
- ② 알코올 발효 : 당 + 효모 → 알코올, Co₂
 - 파스퇴르(Pasteur 1822~1895): 효모에 의한 알코올 발효증명

3. 포도 품종

① Red Win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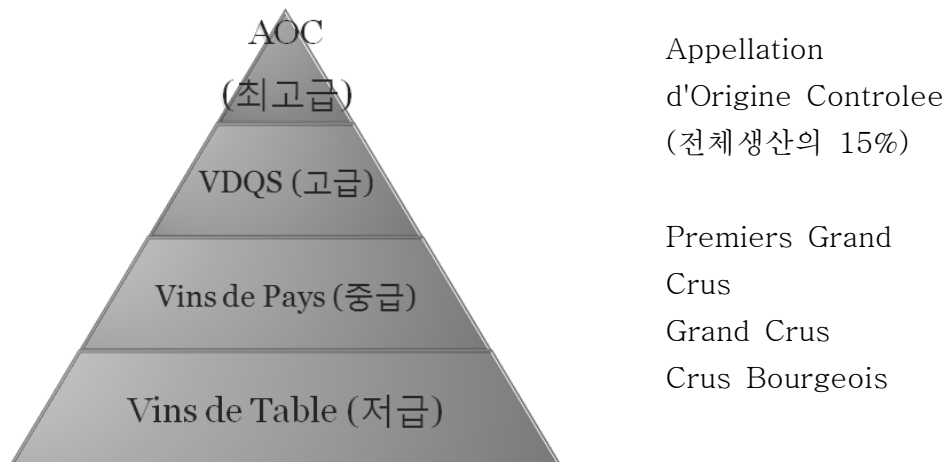
- 까베르네 소비뇽 (Cabernet Sauvignon) : 포도품종의 황제. 타닌맛 강함, 초콜렛, (Bordeaux)
- 메를로 (Merlot) : 타닌맛이 적고 Cherry, Plum, 장미향 등(Bordeaux)
- 삐노 누아 (Pinot Noir) : 과일향이 풍부, 딸기, Violet, Green Cabbage (Bourgogne)
- 쉬라 (Syrah) : Blackberry, Pepper 등 타닌이 풍부하고 스파이시한 맛 때문에 한식과 조화 좋음 (남 호주지역)
- 템프라니요(Tempranillo) : 자두, 블랙베리 등 풍부한 과일향, 바닐라, 오크향 등 (스페인)

② White Wine

- 샤도네이 (Chardonnay) : White wine의 여왕. 신맛과 깊은 맛과의 조화, caramel, 토스트, 복숭아 향 (Bourgogne)
- 쏘비뇽 블랑 (Sauvignon Blanc) : 적당한 신맛과 풍부한 과일향, 풋사과, 아스파라거스, Mowed Grass 향 (Sancerre, 뉴질랜드, 남아공)
- 리즐링 (Riesling) : 단맛과 신맛의 적절한 조화, 각종 꽃향, 꿀향 (Mosel, 미국 워싱턴 주)

4. 각국 와인의 특징

① 프랑스 와인



Bourgogne
Type
(Domain)



Bordeaux Type
(Chateau)

* Label 해독

프랑스 와인 라벨 읽기

1. 브랜드명 샤토 마르삭 세귀노(Château Marsac Séguineau)
2. 등급 크뤼 부르주아(Cru bourgeois)급
3. 생산지 보르도의 마고(Margaux) 코뮌에서 생산됨.
4. AOC등급 아폴라시옹 마고 콩트롤레(APPELLATION MARGAUX CONTRÔLÉE)라는 뜻은 원산지 통제 와인으로, 마고 지역에서 생산된 AOC 와인이라는 뜻.
5. 생산년도 1993년
6. 샤토 이름 및 회사 형태 프랑스의 지롱드 내의 수상이라는 마을에 위치한 샤토 이름과 회사 형태.
7. 생산자명 및 주소
8. 병입지 샤토에서 병입됨.
9. 알코올 함유량
10. 용량 75cl로 750ml라는 의미.
11. 생산국 프랑스.
12. 수확 1993년도에 수확.
13. 병 번호
14. 수상경력 1995년 파리에서 열린 농산물 경연대회에서 동상 수상.
15. 로트 번호



② 이탈리아 와인



Denominazione di Origine
Controllata e Garantita

– Piemonte
: Barolo, Barbaresco
(Moscato d'Asti)

– Toscana
: Brunello di
Montalciano Chianti

* Label 해독

이탈리아 와인 라벨 읽기

1. 브랜드명 몬탈치노 지역의 브루넬로 포도 품종이라는 뜻.
2. 등급 최상의 등급인 DOCG 등급 와인.
3. 생산자명 비온디 산티(BIONDI-SANTI)는 와인명이자 생산자명.
4. 소유자명 비온디 산티 소유라는 의미.
5. 지역명 테뉴타(TENUTA)는 이탈리아어로 지역(토지)이고, 그레포(GREPPA)는 지역의 이름임.
6. 병입 와인 생산자에 의해 원산지에서 병입되었다는 의미.
7. 회사명 및 주소
8. 용량 750ml
9. 국적 이탈리아
10. 알코올 함유량 13%
11. 로트 번호



③ 스페인 와인



- Denominacion de Origen Calificada
 - Rioja
 - Rivera del Duero
- Oak 숙성도에 따른 등급
 - Gran Reserva (5년 중 2년 이상)
 - Reserva (3년 중 1년)
 - Crianza (2년 중 6개월)
 - Vino Joven

* Label 해독



* Label 해독 (미국 와인)

미국 와인 라벨 읽기

1. 여과상태 여과하지 하지 않았다는 뜻으로 그만큼 개성이 풍부함을 느낄 수 있음.
2. 생산년도(빈티지) 1997년
3. 와인 생산자명
4. 재배지역 AVA(the Approved Viticultural Area)로 인정받은 지역인 나파 밸리에서 생산되었다는 뜻. 미국 법에 의하면 나파 밸리에서 생산된 포도가 85퍼센트 이상 들어 있어야 함.
5. 포도 품종 메를로 사용. 미국 와인법에 의하면 상표에 포도 품종이 표시되려면, 그 품종이 반드시 75퍼센트 이상 들어가야 함.
6. 알코올 함유량 반드시 기재해야 함.

II. 와인 즐기기

1. 와인의 보관과 선택

- 저장온도 : 13도 전후
- 음용온도 : Red Wine 13~15도 (실내온도?)
White Wine 6~8도
- 습도 : 연중 기온차가 적고 약간 습도가 있는 장소 (70~80%)
- 빛 : 완전 차단 (와인의 노화 촉진)
- 통풍 : 나쁜 향이 발생할 가능성
- 진동 : 와인숙성 방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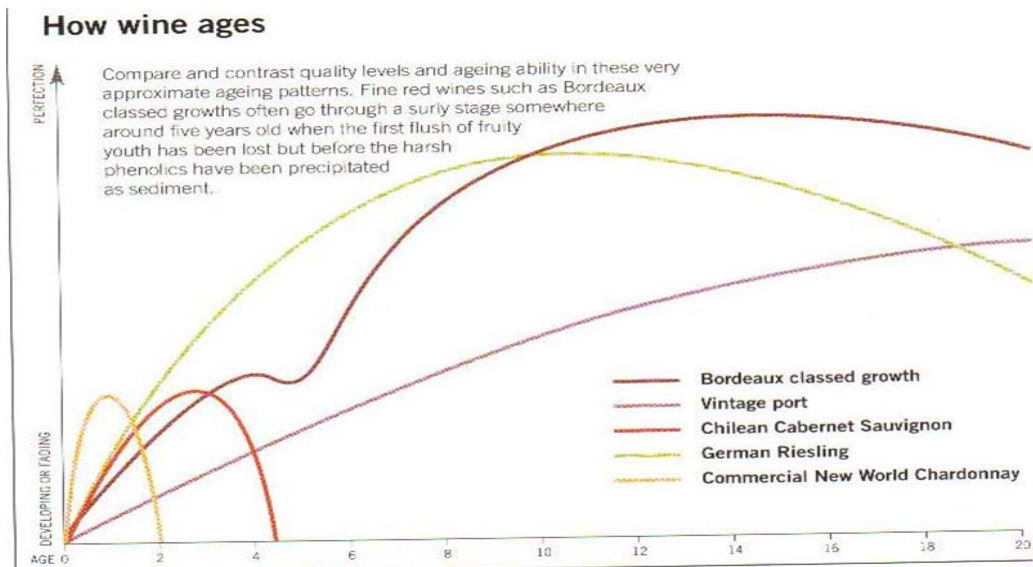
◆ 와인의 선택

- 비싼 와인 = 좋은 와인?
- 가장 좋은 와인 = 좋은 사람과 함께 *가격 대비 품질

◆ 코르크 상태 점검

- 부송 현상(Bouchon) : Corky, 불량코르크가 좋지 못한 환경조성(곰팡이 등) → 곰팡이 속의 페놀성분과 접촉 → 와인에 치명적 결함 초래 → 와인 고유향이 사라지고 코르크, 곰팡이 냄새발생 → 코르크 마개가 뭉개짐 (단, 호일제거 후 코르크 윗부분만 약간의 곰팡이는 오히려 보관이 잘 되었다는 증거)
- 열화 현상 : 더운곳에 보관하여 끓어오른 현상
 - 코르크가 병위로 올라와 있거나 넘쳐서 호일에 와인이 묻어 있는 경우 → 향과 맛이 밋밋하다.
- 산화 현상 : 장기간 공기에 접촉되어 산화가 발생
 - 와인을 장기간 세워 보관 → 코르크가 쪼그라들어 산화됨 → 식초
 - 코르크 끝에 와인이 묻어있지 않거나 딱딱하게 굳어있음

◆ 와인의 보관



◆ Oakaging Colour




◆ Oak Aging



2. 와인의 적정 온도

- White Wine
 - Dry : 8~10도
 - Sweet : 6~8도
- Red Wine
 - Young : 12~14도
 - Aging : 15~19도
 - Great : 18~20도
- Rose Wine : 10~12도
- Champagne : 4~6도

 Decanting : 병속에 갇혔던 아로마(aroma)와 부케(Bouquet)가 빨리
피어나도록 공기와 접촉

3. 음식과의 조화

- 와인의 선택
 - : 포도 품종, 생산지, vintage, 음식과의 궁합(Sommelier)
- 음식과 와인은 색, 재료, 음식의 스파이스(향신료), 분위기에 따라
조화롭게.
 - White Wine: Fish (비린내 제거, 향미보완)
 - Red Wine: Meat (타닌이 단백질을 부드럽게)
 - Rose: Light Meal / Summer Season
 - Sweet Wine: Dessert (단음식에는 단맛의 와인)
 - Champagne : 식사전후 식사중 언제나 어울림
 - Host Tasting: Lable 확인 → 코르크의 젖은상태 및 이상유무 → 와
인잔의 1/10 → 색/향(냄새)/맛(시음) → 손님에게 따르
도록 허락 (Tasting/Drinking)

III. Table Manner

1. 에티켓의 필요성

- 세계는 국제화 시대
- 성숙된 문화 의식으로 깊이있는 인간적 유대관계 조성
- 그 시대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 文化이다.
- 인간 사회를 원활히 하기 위한 상호간의 예절

◆ Wine Manner (配慮)

- 21세기 → 지식을 기반으로 한 좋은 인성 → 매너와 와인 커뮤니케이션 → 자신의 부가가치 창출 → 경쟁력 확보
- 와인은 대부분 호스트(초대자)가 정하는 것이 관례이다.
- 와인 테이스팅은 호스트만이 하는 것이며, 초대된 손님은 음식과 함께 맛있게 마시면 된다. (초대받은 사람은 Tasting 하지 않고, 오직 Drinking 만을 한다.) Tasting 순서
- 와인은 여성부터 따르며 남성, 마지막으로 호스트의 순서이다.
- 와인 글라스는 다리부분(Stem)을 잡는 것이 좋다.
- 소믈리에가 와인을 따를 때는 글라스를 잡지 않고 테이블 위에 놓은 채 받는다.
- 잔은 돌리지 않는다.
- 건배 할 때는 글라스를 눈높이로 들어 올리고 마신 후(Eye Contact), 다시 눈높이까지 올리면서 건배를 제의한 사람의 눈을 보면서 감사의 인사 후 테이블에 내려 놓는다.
- 입 속에 음식이 있을 때는 마시지 않으며, 소리를 내며 마시는 것도 실례이다.

2. 에티켓의 기본

- 남을 즐겁게 하여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것
- (상대방에 대한 배려의 마음)

3. 에티켓의 중요성

- 경쟁사회에서의 보이지 않는 무기
- 자신의 지적 수준을 나타냄

※좋은 손님이 되는 법

4. Toast Message: Keep It Simple and Short

5. Eye Contact



IV. Wine Tasting



V. 와인과 건강

1. 고대 문헌 기록

- 그리스 시대 : 의료용 (고통완화/ 소독제 등)
- 히포크라테스 → 인체 친화력이 우수한 음료 (단, 적정량)
- 로마시대 : 로마군의 위생개선 (외국원정)
- 중세시대 : 수도원을 중심으로 발전 (Don Perignon → Champagne, 아비뇽 → Chateauneuf-du-Pape)

2. 와인의 유효 성분

- Red Wine : 레스베라트롤, 카테킨, 퀴세틴 등
- White Wine : 티로신, 카페인산 등 (기타 다량의 미네랄, 비타민 등)

3. 와인의 건강 효과

- French Paradox (Red Wine)
It's a paradox that the French eat so much rich food and yet have a relatively low rate of heart disease.
- 항암, 항산화, 비만 개선 효과
- 심장, 혈관계에 효과적 작용 (고혈압/ 동맥경화/ 심장병)
- HDL 증가, LDL 감소
- 혈액응고 감소, 응혈 분해촉진
- 중년의 산성체질 → 알칼리성 → 성인병 예방
- 당뇨병 발생률 감소 및 개선효과
- 침샘자극, 위액분비 촉진 → 소화기능 촉진
- 대화 유도 → 즐거운 마음
- 아세트 알데히드 (숙취)
- 와인의 음용 적정량 : (남) 2~3잔 (여) 1~2잔

도연명과 이백의 음주시

장 창 호

(국민대학교)

도연명과 이백의 음주시

◆ 목 차 ◆

1. 중국 음주시의 전통
2. 도연명의 음주시
3. 이백의 음주시
4. 도연명과 이백 음주시의 비교

1. 중국 음주시의 전통

송대의 안수(晏殊)가 “一曲新詞酒一杯”라고 읊었듯이, 중국문인의 두주불사 경향은 오랜 전통으로, 문인을 문인답게 하는 일종의 표시이다. 중국문인 중 대표적 음주시인은 남조(南朝)의 도연명과 당대(唐代)의 이백을 손꼽는데, 도연명은 “篇篇有酒(매 시편마다 술이 들어있다)”로 유명하고, 이백은 “一斗詩百篇(술 한 말에 시 백 편)”으로 유명하다.

이에 비하여 양자의 선배 문인들도 술을 목숨처럼 여겼으나 아직 음주행위를 시가창작으로 승화시키지 못하였다. 대표적 집단이 바로 죽림칠현(竹林七賢)으로, 이들의 음주에는 정치적 의미까지 부여된다. 죽림칠현에게 음주는 죽음의 공포를 면하기 위한 일종의 절실한 연막수단이었다. 죽림칠현은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자기학대를 서슴지 않았으며 그 방법을 술에 의지하였다. 그들의 음주는 광기와 기행으로 점철되어 표면상 자유분방하였으나 사실상 피화(避禍)를 위한 고육책에 그쳤다. 단순한 향락의 단계에 머물고 끝내 음주의 흥취를 문학작품으로 승화시키지 못하였다.

2. 도연명의 음주시

1) 도연명의 인생역정

도연명은 동진(317~419년) 애제 흥녕(興寧)3년(365)에 태어나 남조 송(420~478년)문제 원가(元嘉)4년(427)까지 생존하였다. 당시 동진은 정치의 부패상이 극에 달하였고, 권문세가 사이에는 권력투쟁이 횡행하였다.

도연명의 가문을 살펴보면, 증조부가 동진의 대사마(大司馬)에 올랐고 조부와 부친 모두 태수를 역임했으며 외조부도 정서대장군(征西大將軍)을 지냈다. 그러나 부친을 일찍 여위어 가세가 몰락하였다. 도연명은 생계를 위해 네 차례 출사하였고, 41세에 벼슬을 청산하고 전원에 귀의한다. 만년에 주위에서 다시 출사를 종용하였지만 도연명은 거절한다. 왜냐하면 이때는 이미 50세로 자연과 속세의 구분조차 초월한 경지에 이르러 속세의 시비에 더 이상 연연하지 않게 되었기 때문이다.

2) 도연명의 음주 성향

도연명의 음주는 앞 시대의 음객과는 완전히 대조된다. 그는 음주를 즐기되 과음하지 않았다. 오히려 해학적 일탈로 음주의 즐거움을 배가시켰다.

취권을 막론하고 그를 찾는 사람에겐 술이 있으면 후다닥 술상을 차렸다. 도연명이 먼저 취하면 손님에게 말하였다: “내가 취해서 졸면 그대는 알아서 가시오.” 그의 진솔함이 이와 같았다.

그리고 도연명은 취하면 반드시 시를 지었다. 술이 있으면 시가 따른다는 이 사실은 분명히 여타 위진 시대의 음객들과 차별성을 지닌다.

도연명은 술을 통하여 자연을 관조하고, 자연 속에서 삶의 의미를 깨달아 이를 시가창작으로 승화시켰다. 말하자면 그는 결코 술의 포로가 되지 않았다. 그의 주량은 어디까지나 술병이 빌 때까지고, 마시고 취하면 그 자리에 쓰러졌다. 독작을 즐겼지만 이백처럼 달과 그림자를 벗 삼아 춤추는 소란을 피우지 않았다. 설사 건강 때문에 금주를 다짐했어도 끊지 못한 것은 술의 깊은 맛을 알았기 때문이다. 도연명은 음주 그 자체를 즐겼다.

故人賞我趣，挈壺相與至。
班荆松下，數斟已復醉。
父老雜亂言，觴酌失行次。
不覺知有我，安知物爲貴。
悠悠迷所留，酒中有深味。(「飲酒14」)

옛 벗들이 내가 재미있다고 술병을 들고 물려왔네.
소나무 아래 낙엽을 깔고 술 몇 잔에 벌써 취했네.
사람들 여기저기 떠들다가 술 돌리는 순서 잊었네.
내가 누구지도 모르니 명리가 귀한 줄 어찌 알리?
명리를 쫓아 미련을 둔들 술 속에 깊은 맛 있으니.

3) 도연명 음주시의 성격

도연명에게 음주는 존재 문제와 연관되었다. 도연명은 사상적으로 유가와 도가를 넘나들었던 경계인으로, 삶의 의의를 자문하였을 때 생명의 유한성에 초조하였고, 이러한 곤혹에서 벗어나는 일환으로 술의 힘을 빌렸다. 바로 초월과 달관의 술이 필요한 대목이다. 도연명이 찾아낸 달관의 방법은 바로 ‘급시행락(及時行樂)’이었다.

提壺接賓侶，引滿更獻酬。
未知從今去，當復如此不。
中觴縱遙情，忘彼千載憂。
且極今朝樂，明日非所求。(「遊斜川詩」)

술병 들고 손님 맞으니 잔 가득 채우고 술 권하네.
모르겠네, 이후로도 이 같은 술자리 또 있을 줄을.
술자리에선 가슴 터놓고 천년 묵은 시름을 잊으리.
오늘 마음껏 즐기리. 기회는 내일 다시 오지 않으니.

‘급시행락’의 구호는 술로써 시름을 해소하는 것 외에 인성의 순박함을 회복하여 차츰 자연에 가까워지는 통로가 되었다.

술의 참맛이란 술을 통하여 자연에 가까워져 마침내 인생과 우주의 상관관계 즉 도를 깨우치는 데 있다고 할 때, 이때의 도는 노장의 초월적 경지일 수도 있고 유가의 현실적 안빈낙도일 수도 있다. 취경에서 저녁에 새가 산속 등지로 돌아오는 광경을 보고 이 속에 참다운 뜻이 있음을 깨닫고 자연과

하나가 되었을 때는 이것은 바로 노장의 몰아일체 도경(道境)이고, 현실생활에서 “도를 걱정하지 가난을 걱정하지 말자”고 다짐할 때는 바로 안연(顏淵)을 떠올리며 도연명의 유가적 일면을 확인하게 된다.

4) 도연명 음주시의 성취

도연명의 취경은 농촌에서 직접 밭을 갈고 술을 마시며 실제 삶 속에서 자연과 하나가 되는 정신세계이다.

結廬在人境，而無車馬喧。
問君何能爾，心遠地自偏。
採菊東籬下，悠然見南山。
山氣日夕佳，飛鳥相與還。
此中有真意，欲辯已忘言。(「飲酒5」)

사람 사는 동네에 초가 엮었더니 수레 소리 들리지 않네.
문노니 어떻게 그럴 수 있소? 마음 멀어지니 땅도 절로 비쳐났소.
동쪽 울밑에서 국화를 따려다 물끄러미 남산을 바라본다.
산 경치 밤낮으로 빼어난데 새들 날다 하나 둘 돌아오네.
이 가운데 참 뜻 있으려니 설명하려다 이미 말을 잊었네.

위의 「음주·5」는 시 전체에 술과 관련된 어휘가 한 자도 없지만, 삶 속에서 담담히 자연과 혼연일체가 되는 취경을 그려내며 중국 음주시의 기념비적 작품을 마침내 탄생시켰다. 이는 죽림 명사들의 광음(狂飲)과 전혀 다른 정조(情調)이다.

도연명의 음주 행위가 중국 음주문화에 끼친 가장 큰 공헌은 술과 시를 접합시킨 점이다. 예를 들어 죽림칠현에겐 술은 술이고 시는 시일뿐이며, 그들의 시에는 음주의 심경에 관한 묘사가 없다. 그러나 술을 대량으로 시에다 도입하여 시 안에 “篇篇有酒”하게 한 것은 도연명이 첫 번째이다. 그러므로 두보가 “마음을 너그럽게 하기는 당연히 술이고, 흥을 나타내기에는 술만한 것이 없네. 이 뜻을 도잠이 터득하였다”면서 본받고자 하였다.

3. 이백의 음주시

1) 이백의 인생역정

이백은 당의 측천무후 대족(大足)원년(701)에 태어나 숙종 보응(寶應)원년(762)에 졸하였다. 이백이 활동한 시기는 주로 현종(玄宗 683~760년)의 ‘개원의 치’와 천보(天寶)14년(755)에 일어난 안록산(安祿山)·사사명(史思明)의 난 전후이다.

이백은 서한의 명장 이광(李廣)의 후예로 전해지며, 가세도 매우 부유한 편이었다. 천보(天寶)원년(742) 42세 때 장안(長安)으로 상경해서 현종을 알현하고 장안에 머문 이 3년간이 이백 인생의 황금기였다. 그의 음주시 명작 「將進酒」가 바로 이 무렵 나왔다. 천보14년 55세에 안·사의 난이 일어나자 이백은 여산(廬山)에 피난하였다가 영왕(永王) 이린(李璘)의 군막에 들어가 막료가 되었다. 그러나 이듬해 영왕이 제위다툼에서 패하자 하옥되었고, 유배를 가던 도중 사면을 받았다. 유배에서 돌아온 뒤 만년에는 생활고로 친척에게 얹혀살다가 62세의 일기로 병사하였다. 이백의 일생은 향락과 우수 사이를 오간 풍운아적 삶이자 또한 호기와 구사 및 구선, 좌절과 분노로 점철된 전투적 삶이었다.

2) 이백의 음주 성향

이백의 시 1059수 중에 술과 관련된 시가 183수로 거의 육분의 일에 달한다. 이백의 음주는 죽림칠현의 광음에다 술을 매개로 신선의 경계를 추구하였다. 그러므로 이백은 시선(詩仙)이자 주선(酒仙)으로 칭양받는다.

李白一斗詩百篇，長安市上酒家眠。
天子呼來不上船，自稱臣是酒中仙。(杜甫의 「飲酒八仙歌」)

이백은 술 한 말에 시 백편이라, 장안 거리 주가는 일찍 잠든다네.
천자가 불러도 배 타지 않고, 자칭 신은 술에 빠진 신선이라 하네.

이백이 얼마나 술을 좋아하고 마셨기에 ‘주선’으로 불리는가? 인생 백 년

삼만 육천 일 날마다 하루에 삼백 잔을 꼭 마시겠다고 호기를 부렸고, 강물이 변해서 술로 바뀌길 염원하였다. 명문부호 자제답게 금잔에 명주를 즐겼으며, 음주를 위해 재물을 아끼지 않았다.

도연명 음주시의 단골 소품이 국화이듯이, 이백 음주시의 단골 소품은 달이다. 전원의 도연명에게 국화가 제격이듯이, ‘주선’ 이백에게 제격은 달빛 아래 부르는 취가이다. 이백의 시는 술을 빌어 영감을 얻고, 다시 그의 음주는 시로 인하여 더욱 멋을 더한다. 이처럼 이백의 음주시는 시와 술의 융합이다. 한 잔의 술이 창작의 촉매제가 되어 말을 뱉어도 시가 된다.

3) 이백 음주시의 성격

이백 음주시의 주요 테마는 ‘급시행락’이다. 하지만 그의 ‘급시행락’은 두 가지 요소를 지닌다. 첫째는 회재불우에 대한 반발이며, 둘째는 인생의 유한성에 대한 자각이다.

먼저 회재불우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이백의 음주시는 자기연민에서 나온 허무적 향락주의적 성격이 짙다. 그는 울분과 절망감을 극복하기 위해 몸부림쳤는데, 그러므로 음주의 즐거움 뒤에는 항상 시름 ‘愁’자가 따랐다.

장안을 떠난 이백은 회재불우의 고통과 함께 인생의 허망함을 깨닫고 구선(求仙)을 추구함으로써 인생사를 초월하려고 하였다. 결국 이백은 술을 매개로 존재의 유한성 문제를 초월하고 음주의 행위를 인생 최대의 즐거움이라고 하였다. 바로 물화(物化)의 정신세계로, 취하여도 오히려 맑은 정신으로 인생사를 관조하고 초월하였다.

花間一壺酒，獨酌無相親。
 舉杯邀明月，對影成三人。
 月既不解飲，影徒隨我身。
 暫伴月將影，行樂須及春。
 我歌月徘徊，我舞影零亂。
 醒時同交歡，醉後各分散。
 永結無情游，相期邈雲漢。（「月下獨酌1」）

꽃 사이에 술 병 놓고 홀로 마시니 서로 벗할 이 없네.
 잔 들어 밝은 달 부르고 그림자 마주하니 세 사람 되었네.
 달은 술 마실 줄 모르고 그림자만 나를 따라 다니네.

잠시 달과 그림자를 짝하니 놀기가 봄날이 재격이라네.
 내가 노래하면 달도 배회하고 내가 춤추면 그림자도 비틀비틀.
 깨어서는 함께 즐거움을 나누다 취한 다음 각자 흩어지네.
 영원히 변치 않는 친구가 되어 저 멀리 은하수에서 다시 만나세.

특히 만년의 이백은 통음과 물화라는 속성을 동시에 지니면서 이를 집대성하여 예술로 절묘하게 승화시켰다. 취경의 광방(狂放)과 물화의 조화가 바로 이백을 주선과 시선으로 숭앙하는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다.

4) 이백 음주시의 성취

이백의 음주시는 웅장한 미감을 조성한다. 주정이 이백의 뱃속으로 들어가면 시름이 삭히는 묘약이 되고, 시가로 숙성되어 나왔다. 이러한 음주시는 즉흥적으로 창작되므로 기민한 천재성이 요구된다. 그러므로 음주시는 이백이 가장 이백다운 요소 곧 기발한 착상과 과장된 표현 및 천재의 현장성 등 그의 시재를 가장 잘 보여준다.

君不見，黃河之水天上來，奔流到海不復回。
 君不見，堂明鏡悲白髮，朝如青絲暮成雪。
 人生得意須盡歡，莫使金樽空對月。
 天生我材必有用，千金散盡還復來。
 烹羊宰牛且爲樂，會須一飲三百杯。
 岑夫子，丹丘生！將進酒，君莫停。
 與君歌一曲，請君爲我側耳聽。
 鐘鼓饌玉不足貴，但願長醉不願醒。
 古來聖賢皆寂寞，惟有飲者留其名。
 陳王昔時宴平樂，斗酒十千恣歡諠。
 主人何爲言少錢？徑須沽取對君酌。
 五花馬，千金裘，
 呼兒將出換美酒，與爾同銷萬古愁。

그대 보지 못하였나? 황하 강물 하늘에서 내려와 바다로 줄달음질쳐 다시 돌아오지 않는 것을.
 그대 보지 못하였나? 안채 부모님 거울에 비친 흰 머리 슬퍼하니 아침의 청사머리 저녁에 백설이 되었으니.
 인생은 한창 시절 마음껏 즐겨야지 금 술잔 빈 채로 달을 맞이하지 말게나.
 하늘이 나한테 준 재주 쓸모가 있으리니 천금을 탕진해도 다시 생겨나리라.

양고기 삶고 소를 잡아 또한 즐겨보세, 한 번 마셨다면 삼백 잔은 마셔야지.
 참선생아 원단구야! 술을 들거나, 자네들 잔 놓지 말고.
 자네들 위해 한 곡조 하리니 자네들 날 위해 귀 기울려 들어보소.
 성대한 연회 음악 풍성한 산해진미 다 소용없고 늘 취한 채 술 깨지 말기 바라노라.
 예로부터 성현군자 모두 쓸쓸하고 오로지 술꾼만 이름을 남겼다네.
 진왕 조식 그 옛날 평락관에서 술잔치할 적 술 한 말에 만량 내어 진탕 즐겼다네.
 주인이 되어 어찌 돈 떨어졌다 말하리? 곧장 가서 술 받아와 자네들과 대작하리라.
 오색 무늬 명마와 천금 나가는 갓옷을
 아이 불러 가져가서 맛있는 술로 바꿔와 그대들과 함께 만고의 시름을 삭히리라.

이백의 음주시 대부분 과장적 수사나 격화된 감정의 대립적인 충돌을 통하여 독자에게 주는 충격력을 강화하는 수법을 애용한다. 취경의 광언과 과장된 상상은 타인을 놀라게도 하고 즐겁게도 한다. 광기를 미감으로 승화시키는 역량이 바로 이백 취가의 매력이다.

이백의 시는 술을 빌어 영기를 더하고 이백의 술은 시를 담아 유명해졌다. 이백 음주시의 독창성은 낭만정신에 있으며, 그의 낭만정신은 바로 개성의 표현이다. 이백의 자유로운 개성은 성현과 예교를 조롱하면서 인간 본연의 생명력 회복을 노래하였다. 세속 가치에 대한 반발이 비록 취중의 과장 어법 일지라도 깨어있는 사람의 정신을 진작시키고 새로운 낭만 세계로 인도하기에 충분하였으므로 그의 음주시가 불멸의 가치를 지닌다.

4. 도연명과 이백 음주시의 비교

도연명과 이백의 음주 행태는 서로 판이하다. 도연명이 다소 평민적인데 반해, 이백은 매우 귀족적이다. 주량도 도연명이 절제형이라면 이백은 가히 폭음형이다. 한마디로 도연명이 서민 취향의 소박한 음주가라면 이백은 귀족 성향의 화려한 모주가였다. 도연명이 자아를 축소하여 전원에 안착한 귀은자라면, 이백은 자아를 확대하려다 현실 적응에 실패한 낙백자(落魄者)이다. 도연명은 생명의 유한성을 초월하여 잔잔히 물화의 도취(道趣)를 표현하는 반면에, 이백은 시름을 잊기 위한 몸부림으로 광망한 시어로 음주의 즐거움을 과장하였다. 이렇게 과장된 호기와 기발한 착상이 이백 음주시의 큰 매력 중

하나이다.

도연명과 이백 양자에게 술의 의미는 서로 다르다. 도연명에게 술은 구도(求道)를 위한 수단이고 이백에게 술은 구도와 구선(求仙)의 수단이자 음주 자체가 목적이 된다. 또한 음주시에 나오는 자연 또한 도연명은 그 속에서 생활하는 참여자이며, 그가 마시는 술 역시 도를 찾아 자연의 품에 안긴 사람의 술이다. 그러므로 그의 음주시는 분위기가 정적이고 담백하다. 그러나 이백은 자연의 구경꾼이자 소풍객이며 귀양객으로, 그가 마시는 술은 도를 찾아 길을 떠나는 나그네의 술이자 아직도 갈 길이 먼 유랑자의 술이며, 격정이 남아있는 젊은이의 술이다. 그러므로 그의 음주시는 분위기가 동적이고 낭만적이다.

도연명의 음주시는 도가 중 노자의 '無'의 황홀한 경계를 시적으로 형상화하였다. 그러므로 도연명 음주시의 미학적 특징은 자연미와 담백함이다. 이에 반하여 이백은 내면의 감정을 직설적으로 쏟아내는 시인으로 그의 기발한 상상과 과장된 수사는 장자의 '遊'와 닮아 있다. 그러므로 이백 음주의 미학적 기반은 역동미와 웅장미이다. 상대적으로 이백의 음주시는 물화의 표피적 단계에 머무는 한계를 보이지만, 이백 음주시의 독창성은 낭만성에 있다. 이는 이백의 음주시가 도연명의 영향을 받았으면서 청출어람한 부분이다.

조선시대 회화에 나타난 음주상^{飲酒像}

유 옥 경

(서울대학교)

조선시대 회화에 나타난 음주상^{飲酒像}

◆ 목 차 ◆

1. 강의를 시작하며
2. 耆老宴圖 속의 禮飲像
3. 故事人物畫 속의 流觴曲水飲像과 豪飲像
4. 雅會圖 속의 風流飲像
5. 風俗畫 속의 壚飲像과 勞飲像
6. 강의를 마치며

1. 강의를 시작하며

본 강의는 朝鮮時代 繪畫에 나타난 飲酒像에 주목한다. 음주 이미지는 시각 문화적 표상물이면서 인물화의 주제와 제재로도 중요한 비중을 지닌다. 현재 조선시대 회화연구에서 화풍상의 큰 흐름이나 화가, 작품에 관한 풍부한 선행 연구가 축적된 상태이지만 보다 내재적이고 심층적인 작품 분석을 위해서는 화풍과 장르를 뛰어넘는 새로운 분석방법이 필요한 시점이기도 하다. 이에 보다 시각문화론적 측면에서의 微視的 파악에 중점을 둔 새로운 단계로의 접근을 한다.

조선시대 ‘술(酒)’은 ‘먹는 것(食)’의 하나이면서도 국가의 통치에 있어서 큰 비중을 차지했다. 조선인의 술(酒)과 飲酒에 관한 제반 인식과 행위가 예술적으로 수용되고 승화되어 회화작품에 표현된 것은 흥미로운 현상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강의에서는 술 마시는 행위와 관련된 서사성을 재현한 대표적인 이미지들을 감상대상으로 삼았다. 耆老宴圖 속의 禮飲像, 故事人物畫 속의 流觴曲水飲像과 豪飲像, 雅會圖 속의 風流飲像, 風俗畫 속의 壚飲像과 勞飲像 등이다.

2. 耆老宴圖 속의 禮飲像

耆老宴圖 속의 禮飲像에서는 그림으로 형상화된 耆老宴儀의 예법이 尊賢·養老를 목적으로 술을 마시며 잔치하는 禮라는 점에 초점을 맞추어 그 의식의 내용과 절차 등에 주목한다. 유교적 정치 이념을 표방했던 나라에서는 술의 예법이 중요시 되었으며, 이러한 성격은 격식을 갖춘 연회의 규범인 기로연이나 기영연의 행사장면을 통해 가장 정확하게 표현되었다. 16-18세기의 기영회도·기로회도 속에는 耆老宴 禮飲儀式的 節次가 구체적으로 담겨 있어, 酒禮儀節 이미지의 規範化와 酒禮修飾具 이미지의 公式化 양상을 파악할 수 있다. 특히, 연회의 환경설치를 보여주기 위해 좌우의 균형을 지키는 매우 엄숙한 正面尊重主義의 시점이 적용되었고, 또한 무엇과도 섞이지 않은 정색개념의 적, 청, 황, 백, 흑색을 사용하여 그 색 하나하나가 살아 움직이는 듯한 역동성을 표현하였다.

먼저 酒禮儀節 이미지의 규범화를 찾을 수 있다. 기영연이나 기로연이 열리는 날에 임금은 신하들에게 宣醞을 내려 주었고, 특별히 한 쌍의 향아리에 담은 봉준으로 내리었다. 기로연에서의 술잔을 올리는 예는 獻酬禮와 獻壽禮의 이미지로 대별해 볼 수 있다. 특히, 연장자와 직위가 높은 사람에게 깎듯이 예를 지켜 두 손으로 술잔을 올리는 獻壽禮가 主를 이룬다. 술잔을 주고 받을 때에는 무릎을 꿇고 예를 행하는 읍양례를 취하였고, 대부분 양 손을 모아 잡은 拱手의 자세이다. 또한 좌석을 정하는 예는 공적인 만큼 연령순으로 좌석을 정하는 燕毛의 禮보다는 品階의 順序에 따른다. 술자리의 예가 행해질 때는 반드시 음악이 뒤따랐으며, 공연되었던 춤 역시 왕의 공덕이나 업적을 찬양한 女妓對舞·處容舞·拋毬樂 등이다. 또한, 술자리에서의 禮의 세계를 꾸미기 위한 酒禮修飾具 이미지의 公式化도 찾을 수 있다. 푸른 선의 끝단을 두른 흰 차일과 돛자리·방석, 그리고 屏風, 燈燭, 꽃(花)의 설치 등이다.

3. 故事人物畵 속의 流觴曲水飲像과 豪飲像

故事人物畵 속의 流觴曲水飲像과 豪飲像에서는 서화 등 예술방면에 많이 등장하는 好酒家 문인들 가운데 王羲之(307-365)와 李白(701-762)의 飲酒故事가 특히 문인 취향과 밀착되어 문사들의 이상적 삶의 본보기의 대상으로서 성행하였음을 감상할 수 있다. 왕희지의 난정고사는 술을 통한 절제된 즐거움 즉, 樂을 실천한 유가예술정신의 한 전형을 나타냈고, 이백의 고사는 술을 통한 정신의 해방과 자유의 추구, 즉 遊를 실천한 예술창작자로서의 한 전형을 보여준다.

王羲之의 流觴曲水飲에서는 시문·서예·그림 등 예술적 취향이 강조되는 王羲之式 蘭亭修禊觴詠이 모방 실천 되었고, 그림의 화제로도 자주 그려졌다. 조선에서의 난정수계의 모방 실천과 방난정수계도의 제작은 왕희지 난정의 봄 수계를 사모하고 그리워하는 심층적 상징성을 가지고 있었던 단순한 고사도로서보다는 그 복고 정신의 표상이었다. 16-18세기의 倣蘭亭修禊圖에는 공통적으로 술자리 모임의 특성을 반영하듯 굽이 흐르는 물 위로 떠내려가는 술잔의 이미지가 담겨 있다. 굽이 흐르는 물위에 술잔을 띄어 놓고 시를 짓거나 읊는 문인들의 행위는 왕희지 난정수계를 연상시키거나 상상하게 하였다. 난정수계도 속의 유상곡수음의 이미지는 문사들의 이상적 삶의 갈망을 담고 있는 예술의 표출이다.

飲中八仙 李白의 豪飲에서는 조선후반기에는 음중팔선 가운데 독립된 畵題로서의 이백의 고사가 주종을 이룬다. 이러한 제작 양상은 正祖의 詩觀 즉, 시로써 세상을 교화시키고자 하는 敎化論과 관계가 있을 것으로 보았다. 팔선 가운데 이백은 조선시대에 가장 존중된 중국 문학자 중 한 사람이다. 그 동안 국립중앙박물관 소장의 李慶胤의 전칭 작으로 소개되었던 《仙客圖卷》을 이백의 전기를 담고 있는 《李白小傳圖帖》으로 보고 이백의 삶의 모습과 행적을 구체적으로 묘사하는데 중점을 두고 제작되었음을 감상해 본다. 현존의 李白醉酒像은 대부분 ‘鯨飲’이라 하여 마치 큰 고래가 모든 바닷물을 들이키듯 술을 마시고 일어나지 못함을 묘사하였다. 李漢喆, 白殷培, 劉淑의 작품을 통해 찾을 수 있다.

4. 雅會圖 속의 風流飲像

雅會圖 속의 風流飲像에서는 조선시대 詩律에 뜻을 둔 문사라면 琴棋詩 雅遊와 良辰美景을 겸하여 음주하는 것을 최우선적인 풍류적 요소로 여겼음을 감상한다.

雅遊 風流飲의 대표작품으로 姜世晃의 <玄亭勝集圖>를 들어 살펴본다. 대표작으로 주목하였음은 세 가지 이유에서이다. 첫째, 작품의 분석에 있어 가장 중요한 코드는 ‘玄亭勝集’의 화제이다. 둘째, 畵記에서 밝힌 ‘詩琴酒’와의 상관성이다. 조선시대 문사들에게 있어 거문고 연주와 시 짓기를 겸하여 마시는 술은 온갖 근심을 잊을 정도의 몰입을 수반하는 忘憂酒로서 인식되었다. 셋째, 이 작품에는 술자리 歡具로서의 거문고, 바둑, 벼루, 종이 등이 거의 묘사되었다. 明代 袁宏道の 「觴政」에 언급된 ‘취흥을 돕는 환구’의 대부분이 표현되었음에 주목하였다. 小飲의 흥취는 화려하지 아니해도 마음이 맞는 벗과 마주 앉아 금기서화를 즐길 수 있다면 진정한 雅興으로 여겼던 것이다. 또한, 군자의 덕을 권유하는 예술이란 측면에서 볼 때 이를 가장 효과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고안된 장치가 거문고, 바둑, 詩라는 예술 수법이었다. 士人風俗 현장에서 술자리의 거문고 흥취를 담아낸 대표 작품으로는 김득신의 <松下聽琴圖>를, 술자리의 시 짓기 놀이를 가장 치밀하고 해학적으로 담아낸 작품으로는 姜熙彦의 <士人詩吟圖>를, 그리고 술자리의 신선놀음으로 여겨진 바둑의 樂을 담아낸 대표적 작품으로는 이유신의 <橋軒納涼圖>를 각각 들어 그 의미와 회화적 특성을 감상한다.

良辰美景 風流飲에서는 사계절의 꽃과 달과 흰 눈이 음주하기에 좋은 벗으로 여겨졌음을 賞花飲酒・賞月飲酒・賞雪飲酒의 시각 이미지를 통해 추구한다. 화가들은 정교한 그림을 통해 효과적인 언어로서의 그림, 예술로서의 매체로 담아내었다.

꽃 중에서는 봄의 柳綠花紅, 여름의 綠柳綠淨, 가을의 丹楓黃菊, 겨울의 盆梅가 음주 할 때의 좋은 벗으로 여겨졌다. 대부분 仙家에서 언급된 자연의 경관들이다. 이와 벗하며 마시는 술이야말로 진정한 仙藥酒로서 여겨졌음은 당연하다 하겠다.

또한, 달빛 쏟아지는 강가의 저녁 行樂으로는 응당 적벽의 풍류가 추구되었고, 청풍명월의 술잔을 기울이고 시를 읊는 풍류는 높은 곳에 올라 행해졌음

도 찾을 수 있다. 음력 10월 초하룻날이면 난롯가에 둘러 앉아 酒宴의 모임을 가졌던 고사를 따라 ‘煖爐會’ 풍류가 행해졌으며, 눈 내린 城 머리에 올라 술 마시고 시를 짓는 별스런 정경도 추구되었다. 고아하고 탈속적이며 평담함 등의 심미경계를 보여준다.

5. 風俗畫 속의 壚飲像과 勞飲像

風俗畫 속의 壚飲像과 勞飲像에서는 商旅者의 편의와 상업 정책의 활성화를 위한 賣酒家의 운영이 허용되었고, 권농정책의 일환으로 농번기 논일이나 밭일을 하는 농부들을 위해서 노동휴식의 술이 허용되었음을 감상한다. 鄭澈(1676-1759), 金斗樑(1696-1763)·金德夏(1722-1772), 李麟祥(1710-1760), 金弘道(1745-1806경), 金得臣(1754-1822), 申潤福(1758? -1813 이후) 등이 남긴 酒壚의 이미지와 隴頭餉婦의 이미지는 화본이나 상상속의 모습이 아닌 살아 숨 쉬는 사실의 진정성이다.

조선후기 풍속화를 통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상인들이나 여행자들의 숙박 및 酒食을 판매하는 곳으로 자생한 주막, 도시의 잘 갖추어진 酒肆 등은 사실상 壚를 설치한 酒壚의 이미지이다. 酒壚 이미지의 도상적 근거는 漢代 畫像磚에서 찾을 수 있다. 조선후기 풍속화 가운데 村店의 壚가 그림의 소재로 처음 채택된 것은 문인화의 높은 격조를 잘 드러낸 李麟祥의 <柳川店蓬壚圖>이다. 시골 길가의 전형적인 대장간과 술집의 모습은 김홍도와 김득신의 <路邊治壚>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특히 김득신의 작품은 시골 길가의 酒壚를 가장 성공적으로 화면에 담아 재현해 낸 것으로 감상할 수 있다. 『周禮』 「地館」의 ‘遺人’에 나타난 도로+길가+집+방+음식+창고를 포함하고 있는 즉, 손님과 나그네들을 우대하기 위해 설치된 廬, 宿(路室), 後館의 모든 제도를 담고 있는 것으로 제시한다. 또한 이 두 작품을 통해 酒幕의 다른 명칭인 ‘炭幕’이라는 용어가 솥을 피우고 풀무질(治容炊炭)을 하는 대장간과 술집을 함께 표현한 治壚를 지칭한 것일 수도 있다는 관련성도 제안한다.

또한, 보물 제 527호인 김홍도의 《풍속도첩》의 <酒幕>을 통해 酒壚의 정확하고 생생한 모습을 살펴볼 수 있었으며, 주막 설립의 증가 원인이 되었던 장시를 무대로 이동한 보부상과 행상인들이 주막의 주된 이용자였음도 감상

할 수 있다. 신윤복의 <酒肆舉盃>를 통해 도시에서의 酒壚의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 村店에서의 壚가 술향아리나 술잔 등을 올려놓는 구조였다면, 都市 酒肆에서의 壚는 술그릇을 올려놓는 壚 밑으로 불 때는 아궁이가 있어 그 위에 술을 걸어 술과 음식을 데울 수 있도록 한 溫酒火壚의 구조이다. 저자의 목로판에서 술을 파는 市嫗當壚의 모습은 풍속화나 감로도를 통해 뚜렷이 파악되었고, 當壚에서 술을 파는 것이 꼭 여자만은 아니었음을 劉淑 전칭의 <大快圖>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조선후기 풍속화에서의 農節期 논밭두둑을 따라 새참을 내오는 여인, 즉 ‘隴頭餉婦’의 이미지는 농사철의 단순한 외형의 표현이 아닌, 해마다 풍년 드는 경사가 진실로 있을 것으로 본 ‘豫備’의 강조이다. 조선의 통치 이념인 유교적 민본주의에 토대를 두고 있는 爲民의 성격의 중시이다. ‘隴頭餉婦’의 전거는 『시경』 「豳風七月詩」의 ‘饁’과 樓璣 「耕織圖詩」의 ‘簞食壺漿’에서 찾을 수 있다.

봄의 논밭갈기·모심기에 새참을 내오는 ‘隴頭餉婦’의 최대 이미지는 김득신의 <松下聽琴圖>이다. 그간 이 작품은 봄날 계곡 가에서 문사들이 둘러 앉아 거문고 가락에 취해 흥을 돋고 술을 마시는 장면으로만 소개되어 왔지만 실은 만물이 소생하는 봄철이야 말로 한 해 농사의 시작인 밭 갈기와 모심기의 시기임을 동시에 알려 주는 시대정신의 함축 이미지이다.

여름 김매기의 노동현장으로 새참과 술을 내오는 ‘隴頭餉婦’의 이미지는 김홍도의 <水耘饁出>이다. 또한, 김득신은 김매기 끝 무렵의 광경을 <새참>을 통해 명쾌히 담아내었다. 언덕 아래의 개울가에서 川獵을 즐기는 아이들을 삼입시켜 바쁜 농사철의 한 단락이 마무리 되는 시기임을 확실히 드러낸다.

가을 추수기 벼베기 현장으로 새참과 술을 내오는 ‘隴頭餉婦’의 이미지는 鄭敼의 <農家之樂>에서 처음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추수기에는 오히려 벼타작 장면 속에서의 술병과 술잔을 앞에 두고 수확을 감독하는 인물의 모습이 더 많이 부각되어 그려진다. 열심히 노동하는 일꾼에게도 새참과 술이 제공되었듯이, 농사일을 독려하는 직무를 맡은 인물에게도 술이 제공되었던 것이다. 벼타작의 광경은 농부와 감독자 모두에게 즐겁고 마음이 편한 ‘樂’과 ‘笑歌’의 실천으로 묘사되었다.

6. 강의를 마치며

조선시대 회화 속에 담겨진 음주 이미지는 국왕을 비롯한 지식인들이 갖고 있던 술과 음주에 관한 제반 인식과 행위가 예술적으로 수용되고 승화되어 표현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기로연도 속의 예음상은 조선시대 儒家가 지향하는 교화적·윤리적 차원의 예술의 표출이었으며, 고사인물화 고전상 및 아회도의 풍류음상은 飲酒賦詩 雅趣를 즐긴 문인문화의 절제와 우아함을 보여준 유가 예술 정신의 표출이다. 풍속화 속의 壚飲像과 勞飲像은 조선의 통치 이념인 유교적 민본주의에 토대를 두고 있는 爲民的 성격의 예술의 표출이다. 궁극적으로 술을 매개로 한 실천으로서의 이상세계를 보여주었다. 음주 이미지는 단순한 외형 묘사에 그치지 않고 조선인들의 의례와 흥취 및 정감, 조선시대라는 시대상의 전달 즉, 시대정신의 표출이며, 그림에서의 단순한 소재를 넘어 다양한 정보 전달과 그 이상의 의미 기능을 함유하고 있다.

이번 강의를 들은 많은 분들은 이후 조선시대 회화를 감상할 때 좀 더 새로운 시각으로 작품과 작품을 둘러싼 문맥들을 실상적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회화 작품의 표층적인 이해가 아닌 한 시대의 문화풍조와 시대상의 일면을 읽어 낼 수 있다는 심층적 분석의 기반으로서의 본 강의의 의의를 두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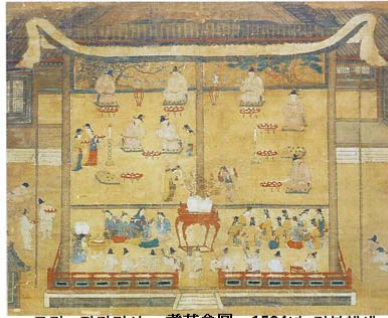


그림. 작가미상, <정영회圖>, 1584년, 견본채색, 163.0×128.5cm, 국립중앙박물관



그림. 작가미상, <宣祖朝菁英會圖>, 1585년, 견본채색, 40.3×59.2cm, 서울대 박물관



그림. 작가미상, <봄 아회도>, 《桃菊佳帖》, 18세기 중반, 지본담채, 28.6×40.7cm, 개인



그림. <類面稍解>, 《李白小傳圖帖》, 국립중앙박물관



그림. <力士脫釋>, 《李白小傳圖帖》, 국립중앙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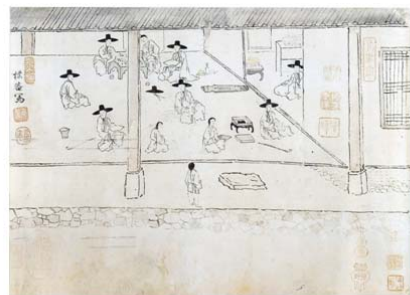


그림. 강세황, <玄亭勝集圖>, 1747년, 지본수묵, 35×101.8cm, 개인



그림. 金喜謙, <石泉閑遊>, 1748년, 지본담채, 119.5×87.5cm, 개인



그림. 金홍도, <雪後野宴>, 《풍속도8첩병풍》, 견본채색, 프랑스기메박물관



그림. 金홍도, <酒幕>, 《풍속화첩》, 지본담채, 27.0×22.7cm(각), 보물527호, 국립중앙박물관



그림. 申潤福, <酒肆學誦>, 《蕉園傳神帖》, 지본채색, 35.6×28.2cm(각), 국보135호, 간송미술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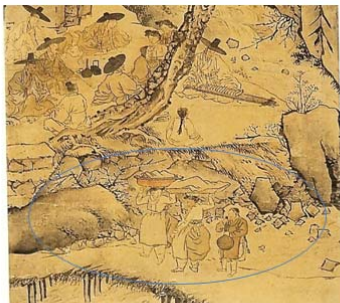


그림. 金得新, <松下聽琴圖>, 1815년, 지본담채, 94.7×35.4cm, 삼성미술관



그림. 金得新, <새참> 부분, 《풍속8곡병》, 1815년, 지본담채, 94.7×35.4cm(각), 삼성미술관

**맥주에서 위스키까지,
영화 얘기를 곁들인 술의 계보도**

임 범

(문화평론가)

맥주에서 위스키까지, 영화 얘기를 곁들인 술의 계보도

◆ 목 차 ◆

1. 들어가는 말
2. 맥주, 기네스에서 밀러라이트까지
3. 술의 역사와 에피소드/ 스피릿(독주) 패턴사
4. 술과 영화 이야기

1. 들어가는 말

한국 사람들 술 엄청 마시잖아요. 스카치위스키 수입량이 세계 4~5위인 나라가 말이죠. 얼마 전 기사에도 나왔지만 20도 이상 되는 술 가운데 단일 브랜드로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게 바카디, 스미노프, 앱설루트 보드카 이런 식인데 진로가 5위 안에 들어갑니다. 럼인 바카디나 보드카인 스미노프는 소비하는 나라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진로는 거의 다 한국에서 소비하잖아요. 그런데 그 정도를 마신다면 참 한국은 알코올 소비의 강국인 거거든요.

그런데 술 소비 패턴을 보면, 소주와 맥주 중심으로 무척 단순합니다. 또 술을 많이 마시면서도 술에 대해 잘 모릅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제목은 거창하지만 실은 여러분들이 술자리에서 얘기하기 좋은, 술에 관한 상식과 에피소드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식과 에피소드들이 중요한 게, 다양화라는 건 알아야 가능한 것이잖아요. 술에 대해 많이 알면 술 소비의 다양화가 촉진되겠죠. 거꾸로일 수도 있겠고. 그런데 술이 기호식품이기도 하다는 걸 염두에 두고 한번 봅시다.

술에 관한 지식, 예를 들어 특정 술의 역사, 판매량 등등이 있을 거고, 이건 머리로만 아는 거구요. 다음에 술의 맛과 향 등 실제 소비에서 오는 물질적

감각이 있을 겁니다. 이걸 몸으로 가는 거구요. 그런데 그 지식과 실제 소비 사이에 뭔가가 있지 않을까요? 이미지라는 것. 저 술은 어느 분위기에 어울리는 것 같다, 어떤 사람들하고 마시면 좋을 것 같다, 강남에서 마셔야 할 것 같다, 저 술은 어떤 기억을 떠올리게 한다, 어떤 배우를 떠올리게 한다, 어떤 음악과 잘 어울린다, 등등...

이 이미지라는 게 지식과 실제 소비 사이에 다리를 놓겠죠. 그런데 거기서만 그치는 게 아닙니다. 이 이미지가 문화를 만들어 냅니다. 특히 술이 기호식품이라는 걸 염두에 둔다면 그 문화가 더더욱 중요해집니다.

한국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술 마시는 장면이 참 멋이 없죠. 거기서도 똑같아요. 소주, 맥주, 위스키일 텐데, 브랜드 상관없이 아무거나 마시죠. 무슨 술을 마시냐가 주인공 캐릭터를 부연 설명하는 기능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영화나 드라마는 그렇게 못 하죠. 여기엔 술에 대한 광고제한 등 등 제도적 제약도 있겠죠. 국민건강증진법에 있는 거지요. 17도 이상의 술은 텔레비전 광고를 못하고요, 17도 미만의 술도 텔레비전은 오후 10시에서 오전 7시 사이에만, 라디오는 오후 5시에서 오전 8시 사이에만 할 수 있게 돼 있죠. 이뿐 아니라 위스키 수입이 자유화된 게 이제 겨우 20년 조금 넘었음을 감안해야겠죠.

오늘 강의에서는 먼저 발효주의 대표선수인 맥주의 역사를, 그 다음에 증류주, 즉 스피릿의 종류와 역사를 살펴본 뒤에 이런 다양한 술들이 영화라는 텍스트와 어떻게 어울려서 서로를 풍성하게 윤색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맥주, 기네스에서 밀러라이트까지

1) 에일과 라거

맥주의 맛은 여러 가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먼저 재료에 따라 달라지겠죠. 맥주의 주원료는 보리, 그중에서도 발아한(싹이 튼) 보리이지만 밀이 절반 이상 들어간 밀맥주도 있습니다. 또 쌀이 들어가기도 하고요. 곡식 뿐 아니라 고수풀, 오렌지껍데기 같은 허브를 넣기도 합니다. 그래서 맥주를 분류하는 방법도 다양하죠. 하지만 가장 큰 분류방법은 바로 에일과 라거입니다.

둘은 발효과정에서 다른 효모를 씁니다. 에일 맥주는 고온, 상면에서 발효하는 효모를 쓰고 라거 맥주는 저온, 하면 발효 효모를 씁니다. 저온에서 발효하면 에스테르와 페놀이 덜 발생하기 때문에 라거 맥주는 맛이 담백합니다. 반대로 에일 맥주는 진하고 풍부합니다.

라거는 발효기간이 깁니다. 에일이 4~6일인데 반해 라거는 8~10일입니다. 저장기술이 발달하기 전까지는 에일이 대량생산이 쉬웠습니다.

2) 에일의 제왕, 기네스

아더 기네스(1725~1803)는 아버지가 대주교의 집사였습니다. 대주교가 죽으면서 기네스 가족 각자에게 100파운드씩 남겨줬고, 아더 기네스는 서른 살에 이 돈으로 더블린 근교에 양조장을 사서 맥주를 제조하기 시작했습니다. 35살에는 세인트 제임스 게이트 양조장을 매년 45파운드에 9000년간 임대하는 계약을 맺습니다.

그리곤 기네스를 만들어냅니다. 기네스엔 싹 틔우지 않은 구운 보리를 씁니다. 자다가 보리를 태워서 흑맥주가 됐다는 설도 있고, 또 싹틔운 보리, 맥아에 세균이 비싸서 그걸 피하려고 싹 틔우지 않은 보리를 쓴다는 설도 있습니다. 여하튼 기네스는 성장을 거듭해 1914년 세인트 제임스 게이트 양조장은 세계 최대의 양조장이 됐습니다. 1997년에 거대 주류회사와 합병해 디아지오가 되지요.

3) 라거의 부흥

기네스를 비롯해 유럽에서 한창 에일 맥주를 마셔대던 1800년대 중반에 독일 맥주회사 슈파텐의 제들마이어가 영국의 페일 에일 기술을 가져와 페일 라거를 만듭니다. 또 체코의 필슨 지방에서 필스너가 나오죠. 필스너, 저온 하면 발효 효모를 쓴다는 점에서 라거와 같습니다. 이들 라거 맥주는 미국 금주령과 2차 대전을 지나면서 에일 맥주를 앞서기 시작합니다.

미국의 금주령을 둘러싸고 미국 내 독일인들이 점령하고 있던 맥주업체에 대한 보복으로 금주령을 내렸다는 설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금주령이 끝나고 난 뒤, 군소 맥주업체들은 다 망해 살아나지 못하고 큰 맥주업체들이 남았습

니다. 그 대표주자가 버드와이저와 밀러입니다. 때마침 1950년대에 모든 카우츠라는 뉴질랜드인이 라거 생산 기간을 단축시키는 혁신적인 기술을 발명합니다.

밀러 맥주는 독일인 프레드릭 밀러가, 19세기 중반 배 타고 대서양을 건너가는 긴 기간 동안 효모가 죽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면서 효모를 미국까지 들고가서 만든 맥주입니다. 버드와이저는 역시 독일인인 아돌푸스 부시가 1876년 체코의 버드와이스라는 지방에 갔다가 거기서 나온 필스너 맥주 제조 공법을 배워와 미국에서 만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버드와이저입니다.

2차대전 후 처음엔 버드와이저가 압도적으로 우세했지만, 1972년 밀러의 밀러라이트가 나오면서 둘 사이의 전쟁은 양상이 복잡해집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영화 <아메리칸 뷰티>이야기를 할 때 다시 살펴보게 됩니다.

3. 술의 역사와 에피소드/ 스피릿(독주) 패권사

1) 증류기술의 개발 - 스피릿의 탄생

‘스피릿(spirit)’, 뭔지 아십니까? 영혼을 일컫는 바로 그 단어입니다. 왜 스피릿이라고 부를까요. 증류과정에서 기화되는 모습이 영혼이 육체를 떠나는 것 같아서라고도 하고, 술 취하면 다른 세상에 온 것 같기 때문에 그랬다고도 합니다. 어떤 자료엔 중세 시대에 술 취한 이가 악마처럼 변하는 걸 두고 그렇게 불렀다고 하고요.

여하튼 위스키, 브랜디, 럼, 보드카, 데킬라, 진, 중국의 백주 등의 증류주를 스피릿이라고 하는데, 술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게 증류기술의 발견입니다. 알코올 증류기술은 술의 역사를 새로 쓰게 했죠. 술을 크게 둘로 나누면 발효주와 증류주인데, 포도주, 맥주, 청주 등 발효주는 인류가 역사 이전부터 마셨고요. 아랍에서 시작된 알코올 증류기술이 11세기 이후 세계로 퍼지면서 술의 일대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유럽에선 포도주를 증류시켜 브랜디를 만들었고, 중국에선 청주를 증류해 백주를 마셨죠. 바다 건너 아일랜드에선 맥주로 위스키를 만들었습니다. 신대륙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탕수수를 발효시킨 중남미의 아구아디엔테에 증류기술이 보태져 럼이 탄생했고, 멕시코의 용설

란을 담가 마셨던 풀케는 증류기를 통과하면서 데킬라가 됐습니다.

그럼 이런 여러 가지 스피릿들의 세력판도가 어떻게 변해왔을까요. 중국에선 12세기부터 줄곧 백주라는, 아주 훌륭한 스피릿을 마셔왔지만, 여기선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살펴보죠.

2) 브랜디와 진

19세기 초까지 서양의 대표 스피릿을 말하면, 귀족은 브랜디, 서민은 진이었습니다. 브랜디 아시죠. 과일주를 증류한 것. 앞에 말한 칼바도스, 코냑 등이 대표적인 브랜디죠. 이 브랜디는 당연히 값이 비쌉니다. 서민은 엄두도 못 냈죠. 그들은 뭘 마셨을까요?

진입니다. 1600년대에 네덜란드에서 신장질환, 담석 등의 치료제로 개발된 진은 네덜란드의 윌리엄 3세가 1688년 명예혁명 뒤 영국 왕이 되면서 그와 함께 영국으로 건너가자마자 바로 서민들의 술이 됐죠. 주정에 노간주나무 열매(주니퍼베리) 향을 섞은 게 진인데, 여기저기서 무허가 싸구려 진이 만들어져 진 음주로 인한 사망률도 높았습니다. 산업혁명 당시 인구증가가 폭발적이었는데, 진 음주 사망이 그 증가율을 낮췄다는 말도 있습니다.

좀 더 정제된 공법이 나온 게 1830년대로, 이후 이 공법에 따른 진을 런던 드라이진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공법은 곡물증류 원액에 주니퍼베리를 첨가해 한 번 더 증류해 만듭니다.

3) 위스키의 시대

여하튼 소수 귀족은 브랜디를 마시고, 서민들은 싸구려 진을 마시던 1800년대 초에, 스코틀랜드 정부는 그동안 불법으로 여겨졌던, 위스키 제조를 허가합니다. 그리고 반세기 넘게 흘러 마침내 스피릿의 제왕, 위스키의 시대가 열리는데 그 전에 먼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제일 먼저 위스키가 만들어진 건 아일랜드입니다. 이게 스코틀랜드로 넘어와서 1820년대에 스코틀랜드 정부가 공인한 1호 위스키 글렌리벳이 나오죠. 그런데 처음에 나온 싱글몰트 위스키는 맛이 거칠다는 이유로 영국 상류 사회에서조차 환영을 받지 못했습니다. 영국 상류층은 여전히 프랑스의 포도로

만든 브랜드를 마셨죠. 그러니 19세기 중반까지도 스피릿의 지도가 아일랜드에 몰트위스키, 영국과 유럽은 블렌디였습니다. 이걸 갠 게 블렌디드 위스키입니다. 몰트에 귀리, 옥수수 등을 탄 거죠. 먹기 좋게 맛을 부드럽게 만든 거죠. 조니 워커, 발렌타인 등등이 다 이 때 나옵니다.

재밌는 건 블렌디드 위스키를 만든 사람들, 존 조니 워커, 발렌타인 같은 이들은 모두 증류소를 하나도 가지지 않은, 주류 판매상들이었습니다. 자기 가게에 있는 위스키들을 이것저것 섞어서 자기 고유의 브랜드를 만든 거죠. 이 블렌디드 위스키가 영국 시장을 장악하더니 유럽까지 건너갔습니다. 마침 그때 유럽에 필록세라라는 포도 해충이 들어와서 포도밭을 쓸대밭으로 만들었거든요. 브랜드 생산량도 급감했죠. 그 틈새를 조니 워커, 발렌타인 같은 술들이 파고 든 거죠.

그리고 나니 문제는 아일랜드의 아이리시 위스키였습니다. 아이리시 위스키는 싱글몰트이고, 발효한 몰트액에 그냥 몰트를 더 넣어서 증류하기 때문에 맛이 더 달고 거칩니다. 블렌디드 위스키가 이 아이리시 위스키 시장을 다 먹어버리자 아일랜드 위스키 업자들은 소송을 냅니다. 블렌디드 위스키에 위스키라는 명칭을 쓰지 못하게 하라고. 그런데 역시 강국을 못 이기죠. 소송에서 집니다. 그 뒤로 위스키의 철자가 달라졌습니다. 아일랜드에선 위스키에 'whiskey'라고 E자를 하나 더 넣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이 이걸 따라 해서 미국도 'whiskey'라고 쓰지요. 영국은 e자가 없이 쓰고, 영국에서 위스키 제조법을 배운 일본도 영국과 똑같이 씁니다.

어쨌건 이제 스피릿의 힘 싸움은 스카치 위스키, 그중에서도 블렌디드 위스키로 끝나나 싶었는데, 20세기 중반부터 다시 싱글몰트 위스키 붐이 일기 시작했죠.

4) 싱글몰트 위스키의 부활

저는 돈도 별로 없어서 만날 가는 단골 술집이나 가는데, 최근에 강남의 바들에 가봤더니 술 마시는 풍토가 제법 변했더라고요. 어지간하면 맥켈란을 마시더군요. 싱글몰트의 대표적 브랜드가 글렌피딕, 맥켈란이고요. 그 외에 아일러 섬의 싱글몰트 위스키가 있습니다. 무라카미 하루키는 '싱글몰트 위스키는 저마다의 퍼스낼리티가 엄연히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마침 세 달 쯤 전에, 제가 전에 다니던 신문사에서 주류에 관한 기사를 쓰

는 후배와 함께 싱글몰트 위스키 시음회에 간 적이 있습니다. 한 주류 회사가 주선한 그 자리에서 글렌피딕, 맥켈란, 발베니, 글렌리벳, 라프로익 등 5가지 브랜드의 싱글몰트 위스키를 마셨죠. 앞의 네 가지 위스키는 스페이 강 유역에서 나온 것이고, 맨 마지막의 라프로익은 아일랜드 섬의 위스키입니다. 앞의 네 가지는 그 맛을 구별하기가 쉽지 않았죠. 여러 번 맛을 본 결과 겨우 미세한 차이를 알 수 있었습니다. 어떤 건 향이 순하고 부드러웠고, 어떤 건 과일향이 진했고, 어떤 건 드라이하면서(달지 않으면서) 향이 묵직했습니다. 그나마 한 자리에서 비교해가며 마셔서 구별이 가능했지, 따로 한 가지만 마시면 그 상표가 뭔지 구별하기 쉽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라프로익은 달랐죠. 코를 대보는 순간 확연히 다름을 알 수 있었습니다. 훈제 연기 냄새와 바닷물의 짠 내음이 확 밀려왔죠. 아닌 게 아니라 아일랜드 섬의 싱글몰트 위스키는 오크통을 바닷가에 내놓고 숙성시켜 해수향이 짙게 배며, 몰트를 볶을 때 토탄(피트) 태운 연기를 오래 입혀 그 냄새도 진합니다. 사람에 따라 이런 향이 역할 수도 있겠다 싶었는데, 한 모금 삼키니 의외로 담백했고요. 서로 어울릴 것 같지 않은, 각자 강한 향들이 묘하게 어울렸고, 그 느낌이 낯선 것 같으면서도 정겨웠습니다. 마침 시음회가 열리던 바의 진열대에 같은 아일랜드 섬의 싱글몰트 위스키인 보우모어가 있기에, 한 잔 달라고 해서 맛보았습니다. 라프로익보다는 덜했지만, 역시 훈제 연기 냄새와 바닷물의 짠 내음이 물씬 풍겼습니다.

이제 아일랜드 섬의 싱글몰트 위스키도 한국에 직수입된답니다. 가격 차이가 크지 않죠. 기회가 되시면 한번 드셔 보시길 권합니다.

4. 술과 영화 이야기

1) 007 제임스 본드와 마티니

외국 영화에서 술이 주인공 캐릭터를 더 빛내고 있는 경우는 허다합니다. 007을 볼까요.

1962년에 나온 007 시리즈 첫 편 <살인번호>에서 1대 제임스 본드 손 코넬리가 악당

들의 음모를 파헤치기 위해 자메이카로 갔다. 호텔 방에 들어서자, 웨이터가 칵테일 셰이커로 흔든 술을 라임이 담긴 잔에 따르며 말한다. “미디엄 드라이 보드카 마티니입니다. 젓지 않고 주문하신 방식으로 섞었습니다.”

웨이터의 이 말은, 그때까지 술의 상식에 비춰봤을 때 무척 튀는 말입니다. 1) 젓지 않고(not stirred) 흔들었다(shaken)? 원래 마티니는 흔들지 않고 저어서 만드는 칵테일이었죠. 2) 보드카 마티니? 마티니의 베이스는 보드카가 아니라 진이었습시다. 3) 미디엄 드라이? ‘드라이’는 ‘담백하다’, 즉 ‘달지 않다’는 의미이며, 진과 베르무트(와인에 알코올과 허브를 첨가해 만든 리큐르)를 섞어 만드는 마티니에서 이 표현은 대체로 베르무트를 거의 넣지 않거나 조금만 넣는다는 뜻입니다. ‘미디엄 드라이’라면 베르무트의 양을 중간 정도로 넣었다는 말일 텐데, 이전까지 마티니의 유행은 ‘드라이’였죠.

인터넷 백과사전 위키피디아에 따르면, 서머셋 모옴은 진이 뭉개지지 않고 각 재료들이 섬세하게 층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 “마티니는 흔들지 않고, 저어야(스터드, 낫 셰이큰) 한다”고 말했죠. ‘드라이 마티니’에 대한 고집들은 한술 더 뜹니다. 헤밍웨이는 통상 3대 1에서 5대 1인 진과 베르무트의 비율을, 15대 1로 해서 마셨죠. 존슨 대통령은 잔에 베르무트를 따랐다가 비워버리고 그 잔에 진을 따라 마셨습니다. 나아가 처칠 수상은 차가운 진을 마시면서 베르무트 병을 바라보기만 하는 게 완벽한 마티니라고 했고, 히치코크 감독의 마티니 레시피는 진을 다섯 번 마시고 베르무트 병을 잠깐 흘겨보는 것입니다.

유명 인사들이 뭐라 했건 상관없이 제임스 본드는 이어 나온 속편 영화들에서 “보드카 마티니, 셰이큰, 낫 스테드”를 자신의 트레이드마크처럼 말하고 다녔죠. 그 결과 마티니 제조 및 음주 방식에 변화의 바람이 불어닥쳤습니다. 언젠가부터 보드카 마티니가 기존의 진을 베이스로 한 마티니 못지않게 유행하게 됐고, 누군가가 마티니를 주문할 때마다 바텐더는 “저을 거냐, 흔들 거냐”를 묻게 됐죠. 40여 년 동안 20여 편이 나온 007 영화들을 전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이 봤다고 하니, 그 위력 앞에서 고루한 마티니 애호가들의 불평은 무기력할 수밖에요.

2) <아메리칸 뷰티> 케빈 스페이시와 밀러 라이트

<아메리칸 뷰티>라는 영화 아시죠. 거기에 보면 중년의 무력한 남자 케빈 스페이시가 딸의 친구인 여고생에게 반하죠. 주책스럽게 말이죠. 그리곤 운동을 시작합니다. 그가 운동을 하면서 맥주를 마시는데, 그게 뭐냐 하면 밀러 라이트입니다. 1960년대에 밀러는 버드와이저에 한참 밀리는 브랜드였죠. 그러더니 라이트라는 공법을 한 맥주회사에서 사들입니다. 라이트가 뭐냐면 칼로리를 줄였다는 거거든요. 살 안 찐다는 거죠.

잠깐 맥주 얘기를 하면, 맥주를 구분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구분이 라거와 에일입니다. 라거는 저온 발효 효모를 쓴 거고, 에일은 고온 발효 효모를 쓴 거죠. 라거는 발효기간이 길고 또 낮은 온도가 필요해서 냉장기술이 발달하기 전까지는 대량생산이 에일보다 힘들었습니다. 라거가 대량생산이 가능해진 게 냉장기술과 함께 20세기 들어서 새로운 라거 공법이 나오면서부터인데, 그 뒤부터 대량생산 맥주는 라거 일색이 되다시피 했죠. 그 두 대표주자가 미국의 버드와이저와 밀러입니다.

이 둘의 전쟁이 어떻게 불붙었냐 하면 라이트 맥주, 드라이 맥주 같은 겁니다. 라이트는 칼로리를 줄였다는 거고, 드라이는 안 달다는 겁니다. 둘 다 다이어트, 건강 등의 이미지를 지니고 있죠. 밀러 라이트는 그 전쟁의 서막인 셈이죠. 1973년 밀러 라이트(lite)가 나오고, 1979년 샷포로로부터 드래프트 공법을 사들여 밀러 제뉴인 드래프트마저 나오고 나니 밀러는 생산량이 급증합니다. 그러자 1982년 버드와이저가 버드 라이트를 내놓는데, 이게 1994년 밀러 라이트를 앞서게 됩니다. 1987년 아사히 맥주가 드라이 공법을 개발해 아사히 수퍼 도라이를 내놓자 버드는 이 공법도 사들여 버드 드라이를 내놓고는 다시 정상의 자리를 안정적으로 굳힙니다.

여하튼 밀러라이트는 당시로선 혁신적인 상품이었죠. ‘그레이터 테이스트, 레스 필링’이라는 광고를 내걸죠. 맛은 좋은데 배는 덜 부르다 그런 말이죠. 광고모델도 운동선수들을 씁니다. 이게 팔려나가기 시작하면서 말 그대로 밀러 타임, 밀러 전성시대를 맞습니다. 그러니까 밀러 라이트는 ‘건강한 몸’ 혹은 거기에 대한 열망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죠. 이걸 여고생에게 반한 중년이 식스팩을 만들려고 마신다? 이런 걸 희망이라고 해도 될까요? 갑갑하죠. 여하튼 이 영화에서 밀러라이트는 주인공의 주책스런 중년의 이미지를 드러내는 데에 딱 맞죠.

3) <007 골든아이>와 버번위스키

제임스 본드는 마티니를 마시지만 그 상관인 M은 무슨 술을 마실까요? 엠 아이 식스는 영국 첩보부이고, 007도 원작은 영국산입니다. 그런데 영화 제작진은 모두 미국이죠. 원래 이 시리즈는 ‘판 브리태니카’ 이데올로기에서 시작했지만, 실제 역사는 ‘판 아메리카’로 흘러갔습니다. 이게 이 영화의 한 고 민입니다.

M은 처음엔 원작 소설대로 코냑을 마셨습니다. 007 시리즈는 1962년 <닥터 노> 이후 1년 만에 한편 꼴로 나왔죠. 그러다가 1989년 16번째 영화 <살인면허> 뒤로 17번째 <골든 아이>가 1995년 나오기까지 6년간 휴지기를 거칩니다. 제작자가 죽고 어찌고 하는 내부사정이 있었지만, 외부로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베를린 장벽이 붕괴되고, 1993년 유럽연합이 출범했습니다. 이전까지는 냉전시대로 공산진영과 자유진영으로 갈려 있었다면 이제 달라졌죠. 공산진영은 사실상 붕괴되면서, 전선이 미국 대 유럽연합으로 미분화 됐습니다. 이전까지는 영국과 미국이 한 편인 게 아무 이상 없었고 유럽도 그 편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M은 프랑스산 코냑을 마셔도 이상할 게 없었죠.

그런데 이제 미국과 유럽연합으로 갈린 뒤 영국은 기로에 섭니다. 미국 편이냐, 유럽연합 편이냐. 1995년 나온 <골든아이> 도입부에 그 답이 나옵니다. 새 상관 M은 여자입니다. 이 여자가 ‘술 한잔 하겠나?’, 그러자 007은 ‘전임자는 코냑을 드셨습니다.’ 엠이 말하길 ‘아이 프리퍼 버번’ 하고는 잭 다니엘을 마십니다. 시대가 바뀐 뒤에 새로 온 M은 미국 위스키 버번을 마신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우린 미국 편이야, 프랑스 편이 아니라고.

분명한 선언이죠. 그런데 참 우아하죠. 유머도 있고. 일종의 자기 풍자가 있는 거죠. 엠이 직접 자기 입으로 우린 미국 편이야 라고 말한다면 그 영화 참 멋대가리 없죠.

술의 다양함, 기호품의 다양함은 이렇게 창작에도 영향을 끼쳐 문화 전반의 풍성함을 낳게 합니다.

제13기 박물관대학 하반기과정

한 잔의 역사, 차·커피·술 - 술술 알아가는 술 이야기

■ 발행일 : 2011.09

■ 발행인 : 서관석

■ 발행처 : 인천광역시립박물관 전시교육과

406-050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량로 160번길 26

TEL. (032) 440-6750

FAX. (032) 440-8871

<http://museum.incheon.go.kr>

■ 인 쇄 : 광창문화사 (Tel.032-883-0881)

